

#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섬기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4408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5
하나님의 뜻.....	7
5672 이 땅의 의지의 시험. 예수를 따르는 삶. 연합.....	7
5486 의지의 변화. 물질을 극복하는 일.....	8
5632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라.....	9
6214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원칙.....	10
2147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머문다.”.....	11
창조물들의 섬김과 창조물들이 생성된 원인.....	13
7158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13
8283 타락의 과정. 존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과정.....	15
창조물 안에서 위로 성장하는 일.....	18
8569 능력을 창조물로 변경시킴.....	18
8702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19
의무의 상태와 자유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섬기는 일.....	22
1907 형태로 존재를 제공한다. 창조의 작품.....	22
2084 사랑의 섬김을 통한 구원. 묶임은 받은 상태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	23
5125 성장과정. 의무의 법. 자유의지의 단계.....	24
7840 의무의 법칙 아래서 섬기는 일. 사랑안에서 섬기는 일.....	25
3345 창조물의 과정을 여러 번 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빛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	27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29
5421 빛의 나라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29
6145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30
7056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32
8331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다.....	33
7035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35
7857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36
7129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	38
섬길 것인가? 싸울 것인가?.....	40
3230 섬길 것인가, 싸울 것인가? 고난의 여러 가지 목적.....	40
5913 싸우는 일이나 또는 섬기는 일.....	41
사랑으로 섬기라.....	43

6202 인생의 사명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43
1786 섬기는 일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아는 일.....	44
1943 육체의 길. 이 전의 삶에 대한 지식. 섬기는 일.....	45
2299 섬기는일 게으름의 죄악.....	46
5341 거만.....	47
7308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48
3918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섬김. 가난. 베푸려는 의지.....	49
4986 사랑. 주는 일의 기쁨. 응답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	50
5905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51
6703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악한 직업.....	52
5886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 시고 (마태 25 장 40 절).....	54
<b>섬기는 일과 물질의 변형.....</b>	<b>56</b>
2333 물질을 재구성하는 일. 섬기는 일. 활동. 높이 성장하는 일.....	56
2789 물질. 변화와 성장. 섬기는 일.....	57
3300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58
6320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 자기 사랑.....	60
7988 사람은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게 도와야 한다.....	62
<b>이웃과 고인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b>	<b>64</b>
5161 중보기도의 능력.....	64
6582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65
7132 긍휼로 드리는 중보 기도.....	66
7438 저세상의 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	68
<b>올바른 예배.....</b>	<b>70</b>
6070 너희는 너희 곁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70
2200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	71
2395 참 예배. 사랑으로 섬기는 일.....	72
3797 올바른 예배는 자선과 긍휼이다.....	73
5249 올바른 예배.....	74
8507 올바른 예배.....	75
<b>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회.....</b>	<b>77</b>
6649 간헐적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	77
6834 올바른 기독교.....	78

7779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	79
8651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회.....	81
포도원 일꾼들의 섬기는 일.....	<b>83</b>
2831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사명. 진리를 전하는 일.....	83
3601 부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 이 땅의 직분.....	84
4174 일하라는 부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사명.....	85
4092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범적인 사랑의 삶.....	87
7990 포도원 일꾼의 이웃을 향한 섬김.....	88
빛의 존재들의 섬기는 일.....	<b>90</b>
3212 영적인 부. 저세상에서 하는 일.....	90
2777 이 땅과 같이 저세상에서 가르치는 일.....	91
3354 빛의 존재가 생각을 통해 주는 영향.....	93
5558 빛의 존재를 통해 사람들을 돌보는 일.....	94
7948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존재의 싸움.....	95
7976 빛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형체를 창조한다.....	97
8664 육신을 입은 빛의 존재의 도우려는 자세.....	98
1744 사랑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섬기라. 겸손. 다시없는 기쁨.....	100
5919 자원하여 사랑을 행하는 일. 법을 지키는 일.....	101
8601 단지 섬기는 사랑만이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101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B.D. No. 4408

1948년 8월 18일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와 연합되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 밖에서 만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찾도록 허용하려면, 그는 세상을 향한 소원을 버려야만 하고, 세상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만 한다. 왜냐면 세상은 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의 대적자가 역사하고,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려는 일이 아니고,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나를 잊도록 하기 위해, 그는 항상 세상을 전면에서 내세우려고 한다.

너희 가운데 이제 누가 위로 성장하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조공을 받치는 일이 불가능하다. 비록 그는 그에게 큰 요구를 하는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지만, 그가 의무를 다하는 일과 그가 세상을 추구하는 일은 구별할 수 있다. 그가 의무를 다하는 일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부합된 일이다. 너희에게 세상적인 과제 외에, 혼을 성

장하게 하는 영적인 과제가 실제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세상을 향한 소원이 지나치게 커서,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잊고, 나를 생각하는 일이 그에게 불편하게 되어, 나를 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보다도, 영적인 것을 향한 소원을 더 크게 가짐으로, 너희의 영적인 과제를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과 감각과 육체의 만족을 채워 줌으로써 또는 이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물질적 재산을 모아, 자신의 육체를 지나치게 크게 안락하게 만들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원하는 나의 대적자의 도구이다. 그가 세상을 향한 갈망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를 향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가 두 주인을 섬기면, 그는 어느 한쪽에게도 진정한 섬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너희 관점을 하늘을 향해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것은 나의 대적자의 나라로서, 너희가 육체로는 이 나라에 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혼은 언제든지 나의 나라의 나에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육체가 나의 대적자의 나라에 있으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세상 밖에 있는 영역으로 항상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나를 찾으려 하고, 나를 섬기려 하고, 나에게 속하려는 너희에게 이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안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그가 진심으로 나를 추구하면, 그의 심장이 세상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이웃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나와 연결을 이룬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린다. 그는 이웃에게 베풀며, 섬기고, 그의 주인인 나를 섬긴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계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사랑은 자기 사랑의 한 형태이다. 만약에 그가 복되기 원하면, 그는 자기사랑과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싸워야만 하고, 자신 안의 영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존재들에 해당되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혼의 소원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 내가 주인이다.

아멘

이 땅의 의지의 시험. 예수를 따르는 삶. 연합.

B.D. No. 5672

1953년 5월 10일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룬 가운데 너희의 축복을 찾는다. 너희는 한때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분리되었고, 이로써 불행하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연합의 상태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 와야만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찾은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헛된 방향을 추구하는 일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과 같고, 너희 혼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길을 멈추는 일이고, 나와 의 연합과 다른 목적을 따를수록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된다.

내가 유일하게 너희의 목적이 되기 원한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너희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축복을 너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 내 모든 염려이다. 나는 너희를 항상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운명을 인도해서 너희가 내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한도에서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여서 그의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지라도, 그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너희가 유일하게 올바른 목표를 떠나게 하기 위해 쫓아야 할 다른 목표를 항상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힘들게 돌고 돌아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너희 시간은 빠르게 지날 것이다. 너희가 나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너희에게 허용되고, 너희가 이런 짧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시간은 너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된다.

너희가 나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너희에게 제시되었고, 너희가 안전하게 나에게 오기 위해 단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가면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의식적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하고, 너희 손을 나를 향해 펼쳐,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 있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면의 기도와 생각으로 나와 함께 항상 연결돼야만 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 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하고, 이런 일은 너희가 이미 나와 연결을 이룬 것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살 때 너희는 이 땅의 목표와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너희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너희의 의지를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게 하고, 나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의지를 시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너희의 의지는 한때 나를 떠나 내 대적자를 향했고, 너희는 이제 대적자를 떠나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나와 직접 연결을 이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이해하느냐? 내가 유일하게 너희 심장을 채우기를 원하고, 너희가 너희 심장을 유일하게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내가 너희의 주님이요 왕이 되기 원하고, 내가 네 옆에 생각으로 사랑하는 이방신들을 두는 일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느냐? 왜냐면 이방신들은 너희가 나와 완전히 연합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과 나누어지지 않는 심장과 나누어지지 않은 의지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때 너희는 나와 내 대적자 사이에서 결단해야 했고, 너희는 내 대적자를 맹목적인 사랑으로 쫓아,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떠나 단지 나를 쫓아야 하고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 너희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권리를 다시 얻게 된다.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일은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쉽게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했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너희가 나를 인정하게 했다. 내가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고,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단지 나와 온전하게 연합이 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아멘

의지의 변화. 물질을 극복하는 일.

B.D. No. 5486

1952년 9월 14일

**너**희를 아직 이 땅에 묶어 두고 있는 영은 나를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런 영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영이 소유하고 있고, 이런 영이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영적인 존재는 아직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 자신은 이미 인간으로서 이미 현저하게 너희의 성장을 이뤘지만, 너희가 아직 그에게 전적으로 모두 속한 물질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그의 권세 아래 있다. 너희는 영적인 연관관계를 알아야만 하고, 너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내 대적자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너희의 감각을 사로 잡는다면, 너희는 아직 그의 영역에 있고, 의지적으로 그에게 향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그의 권세를 벗어나고, 동시에 이 땅을 벗어나 영의 나라로 올라간다. 영의 나라는 나에게 속한 나라이고, 너희가 정함을 받은 대로 그 곳에서 내 뜻대로 역사하고 사역할 수 있기 위해 거해야 할 나라이다.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너희의 의지의 변화를 성취시켜야 하고, 물질 세계를 경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물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질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나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집합체이고, 정화가 되어야 하는 영적인 존재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물질 위에 뒤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하고, 그대신에 내가 통치자인, 모든 존재는 영화되었



고, 말할 수 없게 행복한 나라와 연결을 이뤄야 한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내 대적자의 통치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러나 물질이 아직 너희를 묶고 있고, 너희가 물질을 향한 갈망을 느끼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직 영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분산되지 않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의 성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와 힘과 빛이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 안의 영적인 존재는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나에게 올라 오고, 나와 더 이상 영원히 분리 될 수 없게 된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는 너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향한 욕망이 없이는 너희는 그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러면 너희는 물질을 극복한 것이고, 단지 영의 나라의 재물을 갈망하게 되고, 영의 나라의 재물을 소유한 너희는 강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대적자에게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내 대적자를 극복했다는 일은 내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를 축복되게 하는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받는 축복은 진실로 측량할 수 없고, 진실로 대적자에게 대항하는 어려운 싸움과 비교할 수 없게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대적자에게 대항하는 어려운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아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라.

B.D. No. 5632

1953년 3월 21일

**너**희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바치고, 의지가 없이 그의 손에 너희 자신을 맡기라. 주님의 의지가 너희의 의지가 되기를 원하라. 너희 안에 더 이상 어떤 저항도 느끼지 않기를 원하라. 너희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라. 이런 전적인 헌신이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의지를 갖고, 올바르게 행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가장 작은 저항이라도 있으면, 너희는 또한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저항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면, 이런 일은 가장 큰 승리의 역사이다. 이런 의지는 사람들의 사랑이 더 활발해질수록 항상 더 실행하기가 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은 이미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기는 일이고, 그와 하나가 되어 동시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린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는 항상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갖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사랑을 통해 영적인 연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가장 확실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할 생각을 해야만 하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항상 너희를 정해야 하고, 너희 심장은 부드럽고 관대해야 하고, 너희는 심장에서부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

고, 모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이웃을 너희의 형제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비통함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이 너희의 변화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유용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주변에서 악한 일은 너희를 통해 선하게 돼야 하고,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너희의 적에 대항하는 무기가 돼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사랑과의 너희의 유대가 점점 더 굳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너희의 뜻이 되고, 그러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의 저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으로,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너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희생재물로 드리게 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전적으로 소유하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원칙.

B.D. No. 6214

1955년 3월 17일

**사**랑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단지 내 뜻에 합당하다. 이로써 너희는 이제 내 뜻의 정확한 특징을 알게 되었다.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나를 향한 사랑과 너희 이웃 사랑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돕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해야만 하고 너희가 행하는 일에 이기적인 생각과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면 자기 유익은 이기심이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이다. 단지 혼을 담고 있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너희 육체를 유지해야 하는 동안에는 가장 작은 정도로 너희 심장 안에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육체가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체에게 필요한 정도가 너희에게 허용이 된 너희 자신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기 사랑의 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이런 일은 너희의 자유이다. 자기 사랑의 정도를 낮추는 일은 항상 혼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를 너희가 이 땅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둘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몸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갈망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가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을 부인한 것을 혼이 저세상의 나라에서 다시 부유함으로 되찾게 되고 혼이 이제 이런 부유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 혼은 축복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삶에서 너희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생각과 의지나 또는 행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재량에 따라 너희의 이 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뿌린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하는 일이 너희 혼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야만 한다.

심장이 자원하여 사랑을 행하고 사람이 가능한한 자기 사랑에 맞서 싸운다면, 그는 스스로 내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의 충동을 따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베풀고 행복하게 해주도록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미 자신 안에 내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는 자신의 초기의 사랑이 적은 성품을 변화시켰고 그의 심장이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그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의 이웃에게 사랑을 발산하고 이웃이 또한 그의 모범에 따라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다.

사랑은 신적인 것이고 내 원래의 성품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에 의해 붙잡힌 모든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야만 한다. 나 자신에 의해 붙잡힘을 받은 심장은 그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이제 나와 연결을 이루고 피할 수 없게 다시 원래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가 한때 나에 의해 사랑의 발산으로 모든 온전함을 가진 가운데 생성되었을 때 소유했던 모든 속성들과 능력들을 다시 얻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이런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왜냐면 사랑이 존재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사랑이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해서 빛과 힘을 넘치게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의지는 항상 절대로 너희에게 사랑의 원칙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도록 너희를 유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목표로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의지는 항상 단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 계명의 성취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이런 내 뜻에 대해 알아야만 하고 그러므로 내 말씀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전달되어 내 뜻을 알게 한다.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단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가 다시 사랑이 되면, 그가 단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머문다.”

B.D. No. 2147

1941년 11월 11일

**내**가 너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라. 너희의 삶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원동력에 따라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원동력이 사랑이어야 한다. 너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러운 느낌이 너희의 내면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고양된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나와 영원히 연결된 가운데 머문다. 왜냐면 그가 나 자신과 같고, 나 자신을 사랑인 것처럼 그도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 자신 안에 평화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영이 나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은 더 이상 나의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왜냐면 너희의 영은 영원으로부터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과 연합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가 나와 연합하여 살고 있다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싸움도 없고 걱정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원래 초기부터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드러야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될 정도로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이웃사람에게, 너희가 나에게 행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행함으로써,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만 한다.

나는 이웃 사람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통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에 대한 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하는 너희의 사랑의 역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가장 깊은 평화와 고요한 행복의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했고, 나의 말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다.”

아멘

창조물이 생성된 원인.

B.D. No. 7158

1958년 7월 3일

영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종류의 창조물을 가진 모든 우주  
의 창조물들이 생성된 원인이었다. 이런 창조물이 생성되기 전에는 단지 영의 나라 만  
이 있었다. 이 나라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된 세계였다. 이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능력과 빛을 소유 한 가운데 그들이 정함 받은 대로 창조할 수 있었다.

이런 창조는 영적인 창조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재에게 흘러가는 생각과 아이  
디어를 실제화 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이 제공되고 그들이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측량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의 축복된 상태가 절대로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들 내면에서 그들의 창조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로써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사랑의 빛의 비추임을 충만하게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제한이나 빛이 줄어드  
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상태가 되었다.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이고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에 의해 그들이 영원한 신성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루시퍼가 자신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생성되게 했다고 주장하  
며 그들에게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받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존재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창조한 분에게 향했다. 그러나  
루시퍼의 설명이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 설명이 그들에게 더 믿을 만하게 보였다. 왜냐  
면 루시퍼는 빛과 광채를 발산했고 그들이 루시퍼 위에 있는 존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아직 깨달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그들은 루시퍼의 설명을 의심으로 대  
항했다. 이제 빛이 충만한 순간이 작은 흐릿한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존재가 흐릿한 상  
태에 빠질수록 어두워진 생각의 상태가 더 지속되었다. 그러나 또는 존재가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빛이 충만하게 자신의 진정한 출처를 깨달았다. 루시퍼는 이런 존재들의 깨달음을 더 이  
상 흐릿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두워진 상태가 더 지속된 존재들은 루시퍼의 권세 아래 들어 갔다. 그들은 루시퍼  
에게 속하고 루시퍼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겼다. 왜냐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깊은 곳  
으로 떨어지게 전에 항상 또 다시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 충만한 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  
다. 원래 초기의 줄어들지 않은 루시퍼의 능력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축복된 영의 존재들을  
창조했다.

이런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로 인해 그 안에 잘못 된 자기 의식이 자라게 되었다. 그는 자신  
이 능력을 얻은 원천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준 능력의 증거

만을 보았다. 비록 그가 이 능력이 자신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한 분에게 속하였음을 알았을 지라도 능력을 단지 자신을 위해 소유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소유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출처를 계시해주는 이 존재들 안의 빛을 흐리게 했다. 이로써 루시퍼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결정하고 이로써 빛의 전달자로서 존재들이 그들의 능력과 빛을 잃고 어두움에 빠지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축복이 줄어들게 하고 자신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과정이 영적인 종류와 물질적인 종류의 끝없는 창조물들이 생성된 원인이었다. (1958년 7월 3일) 이런 창조물들은 단지 형태를 변화시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타락을 통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진 일을 통해 존재의 성분이 더욱 타락할 수록 항상 더 굳어지게 되었다.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항상 활발하게 일하게 하는 영의 능력이 영적인 존재들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로써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되었고 생명이 굳어졌다. 남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굳어진 성분이었다. 비록 이 성분이 원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효과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원래 영적인 존재들에게 다른 사용 목적을 부여했다. 즉 쉬지 않고 그러나 동시의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의 의지가 되어 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이 정함 받은 일과 반대로 행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 자신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시 전적으로 굳어진 자신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된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입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영적인 존재들에게 개입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입자들을 분리해 이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창조의 작품들이 생성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동시에 한때 자신으로부터 발산된 능력을 변형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창조의 작품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이제 의무의 상태에서 성취하게 하여 분해된 영적인 입자들이 이제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나 영의 존재로서 전에 소유했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원래 초기에 하나님이 존재로 생성되게 했고 단지 온전함의 측면에서 그의 온전함이 전적으로 바뀐 상태이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창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단지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발산한다.

그러나 이는 다시 단지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 그들의 제한이 없는 능력에서 나온 영적인 작품들이다. 이 세계는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거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곳에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제한이나 어떠한 무능력도 없다. 이런 부족함과 제한과 무능력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걸형체 안에서 일하게 강요받는 걸형체가 필요할 때 나타났고 우주가 하나

님을 떠난 존재들을 담을 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묶임을 받고 있다. 형체가 굳을수록 그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더욱 강박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

그러나 형제 자체인 물질도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를 담는 그릇으로 그가 성장하게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모든 이런 영적인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영적인 입자들이 저항을 강제로 꺾게 강요하며 영적인 입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실제 창조의 작품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특정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원래의 존재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의 작품을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어두움의 주인에게 다시 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단계 하에 항상 행하는 일이 대부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줄어줄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이미 자신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일을 통해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 그의 원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영의 나라에서 한 때 이뤄진 타락의 결과이다.

별들의 세계는 영원에 걸쳐서 존재할 것이다.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열어주게 위해 새로운 창조물들이 항상 생성될 것이다. 귀환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까지 마지막 강박한 영적인 존재들이 분해되고 귀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이런 창조물들이 영화되는 일이 끝날 것이다.

언젠가 다시 단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하며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영의 세계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녀들을 자신의 주변에 갖게 되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만들려고 재촉하고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을 쉬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타락의 과정. 존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과정.

B.D. No. 8283

1962년 9월 26일

**내** 사랑의 흐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빛을 잃는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흐름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흐름에 너희 자신을 열 때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빛과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써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의 모든 온전함을 잃게 되었고 나로부터 온전하게 창조된 너희 성품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전적인 반대되는 성품을 입게 되었다. 내 신적인 존재의 모든 특징인 온전함을 잃은 것이다. 너희가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가까이에서 거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최초로 나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성품을 바꾼 내 대적자의 성품을 너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내 대적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피조물들을 소유하려고 했고 비록 내 능력으로 존재하게 됐을 지라도 그의 의지를 사용해 수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 이 피조물들은 내 일부분이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를 나에게 또는 내 대적자에게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에 있었을 때 그들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창조한 자가 이들을 나로부터 떠나가게 했다. 그는 이들 앞에서 모든 화려함으로 자신 스스로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내며 볼 수 있는 자기를 따르라 고 명했다. 그들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들은 나를 자신들을 창조한 존재로 알았다. 그들은 다른 자에 게로 돌아섰다. 그들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했다. 이는 능력과 빛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내 대적자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 되었다. 그들은 내 대적자를 자유의지로 따랐다. 그들은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로부터 무제한으로 사랑을 받던 옛날처럼 행복한 상태가 아닌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되었고 빛과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한때 나로부터 능력으로 비추임을 받은 자신의 빛과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의식을 잃게 되었다. 계속하여 아무런 행함이 없이 남을 수 없다. 왜냐면 영원한 법칙에 따라 능력은 활동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한때 존재로서 반출된 능력을 변형시켜서 내 의지에 의해 섬기는 역할을 받은 모든 종류의 창조물을 창조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는 이런 섬기는 역할을 부여했다. 반출된 능력은 이제 자신들에게 정해 준 것을 성취했다. (1962년 9월 26일)

이들은 항상 단지 내 의지를 따라서 행했다. 나는 한때 자유한 존재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그들에게 계속하여 주어지는 사랑의 힘을 사용하게 했다. 왜냐면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는 동안에는 존재들의 사랑이 나와 같은 의지 아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은 실패했고 전적으로 반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극심한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 다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내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제한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의 힘을 주어진 목적의 따라 사용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창조하며 자유의지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의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내 의지에 합당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들의 의지를 정하고 올바른 사랑은 절대로 나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원하고 나와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한때 발출되어 나온 능력은 영원히 행함이 없이 남을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역사에 능력을 사용하면, 나 자신이 이 역사의 효과를 막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에 온전한 존재로 창조된 이들을 다시 작은 그리고 가장 작은 능력의 입자로 만들어서 단지



내 의지대로 일하게 하고 나는 이 모든 입자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만들어서 다시 전에 창조된 한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 존재는 다시 자기자신을 의식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받는다. 나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속하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이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특징이고 최고의 행복을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가장 깊은 어두움을 추구할 수도 있다. (1962년 9월 26일)

나는 이 깊은 곳으로 타락한 존재도 다시 최고로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나를 떠난 그들이 다시 언젠가 내 자녀로 돌아올 것을 알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내 의지는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이 바로 내 의지가 물러서는 기간이다.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되길 추구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만약에 그가 어떠한 강요받지 않고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준수할 때 그가 사랑의 삶을 살며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말해 내가 그를 창조할 당시 자신의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들면, 이에 도달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증명했다.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같아졌고 그는 이제 그를 내 자녀로 만드는 온전함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원함 가운데 내 자녀로 남을 것이다.

아멘

능력을 창조물로 변경시킴.

B.D. No. 8569

1963년 7월 25일

나를 떠나 타락한 모든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들은 분해돼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정해 준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키지 못했고 만약에 그들에게 나를 대적할 능력이 있었다면, 나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계속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 스스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분해시켰다. 다시 말해 한때 존재로 발출되어 나온 능력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켰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존재들이 다른 형체 안에 있게 되었다.

너희가 너희 주변의 창조물들을 관찰하면, 너희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내 의지에 따라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의무 상태에서 섬겨야만 하는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로써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에게 정해진 것을 가지고 있다.

내 사랑과 지혜가 창조물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목적에 합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깨달은 대로 창조물들은 다른 창조작품들의 생성과 유지를 섬기고 있다. 한때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가 자유의지 가운데 내 사랑의 힘에 비추임을 거절했다.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항했다.

그는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원래의 성분으로 모든 창조 작품 안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분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나온 모든 능력은 내 의지에 따라 역사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의지에 대항하는 역사를 막을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타락한 존재들이 섬겨야만 하게 만들 음으로써 이를 통해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들의 목표와 목적인 성장이 보장되게 하면서 내 의지가 역사할 수 있는 상태로 했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즉 모든 분해 된 입자들이 다시 모여서 내가 한때 창조했을 때처럼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으로써 전적으로 다시 내 의지와 하나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즉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의 단계에서 존재는 다시 자기를 의식한다. 존재가 나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는 내 의지를 이제 알게 된다. 내 의지는 단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요구한다. 내 의지는 존재가 내 대적자의 가장 큰 죄악인 모든 자기 사랑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 의지는 단지 전혀 사랑이 없는 존재의 성품이 나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존재가 거절하지 않고 그가 한 때 거절했던 사랑을 다시 영접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존재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빛과 영광의 내 나라의 내 자녀로 영접될 수 있다. 그러면 이로써 존재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완성시켜야만 할 귀환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다.

존재는 다시 그의 아버지의 집 안의 나에 게로 돌아온 것이다.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너희는 내 의지를 성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의 책임을 의식할 것이다. 그는 이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생각으로 기도로 또는 사랑을 행함으로 나에게 향하면, 항상 주어질 수 있는 내 사랑의 빛을 그들이 단지 거절하지 않으면 빛을 향한 갈망이 그 안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나에게 돌아온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향한 의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런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욕구한다. 왜냐면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자신의 의지를 잘못 향하게 하였었다. 그는 이제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나로부터 내 사랑을 비추임 받을 수 있기 위해 다시 자신의 옛 자녀의 신분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의지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 창조하며 조성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나와의 연결을 끊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주 강하게 되어 이 사랑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단지 항상 반복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현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무엇이 되어 하는지에 관한 깨달음을 전해줘야 한다. 왜냐면 이런 깨달음이 너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지식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너희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위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내 말을 통해 내가 목표하는 것은 너희가 무관심하게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일이고 목적과 목표를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살지 않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나 자신을 깨닫게 너희가 이제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하게 이를 통해 너희의 마지막 이 땅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너희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와 너희가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축복되게 되게 하기 위해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B.D. No. 8702

1963년 12월 17일

**다**음을 받아들여라: 한때 내가 존재로 발산시킨 힘을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켰고 이런 존재가 분해 된 상태에서 느린 성장 과정을 시작했다. 영적인 입자가 내 의지에 의해 압축이 되어 물질이 되었을 때 서서히 형체를 입은 영적인 입자들에게 이런 일이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요동이었다. 이런 물질들은 아주 많은 서로 다른 종류였고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내 사랑과 지혜로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창조물 안에서 성취될 구원계획을 세웠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도록 자극해주는 일이 내가 창조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서로를 필요로 해야만 하고 이로써 느린 성장 과정이 가능하게 된다. 창조물의 초기에 섬기는 기능을 너희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고 창조물이 이미 굳은 형체를 입었을 때 비록 이런 창조물들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

모든 활동은 생명을 증거하고 모든 활동은 변화를 가져와 형체들이 계속하여 변화되어 항상 더 큰 창조물로 발전해 나가고 내 의지가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내 뜻대로 실행하게 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내 뜻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나 또는 형체가 된 힘이 느리게 성장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저항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고 이런 일이 비록 내 의무법칙에 의해 일어나지만 섬기는 일로 나타나고 저항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광물과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의 단계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하여 걸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존재들이 다시 모여 더 큰 형체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섬겨서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한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 이제 인간 안의 혼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작은 생명체와 가장 작은 생명체들이 죽은 후에 모여 더 큰 걸형체를 입게 되고 성장 과정을 계속 하게 된다. 내 사랑과 지혜로 항상 특정한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체가 창조된다. 너희는 자연 가운데 작은 생명체에서 항상 점점 더 커지는 생명체로 성장하는 일을 본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형체를 새롭게 창조해야만 했다. 이런 형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이 전의 형체와 유사하는 되는 일은 항상 내가 창조한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원한 계획은 정해졌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피조물을 이미 알았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 종류의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각각의 피조물이 자신의 영적인 입자를 성숙하게 만들수록 창조물은 항상 더 커졌다. 이를 신체가 커지는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생명체의 특성들과 그의 기능들과 그의 능력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내 끝없는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작품이었고 그들은 번식하지만 그러나 창조물은 항상 내가 창조했을 당시의 상태로 머문다.

어떤 생명체도 자신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변화나 또는 계속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역사는 생명체가 생성되었을 때 내가 창조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인간과 유사한 모든 존재들도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었고 그들이 내 전능한 능력의 작품으로 창조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런 창조물들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더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내 의지를 통해 항상 점점 더

인간에 유사한 걸형체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창조는 항상 내 의지에 기초한 역사였고 이런 역사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존재가 자연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이런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물로 여길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내 전능함과 사랑과 지혜로부터 나온 고유한 창조물으로써 이 땅에서 높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아주 똑똑한 짐승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는 존재로 양육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짐승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인간이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절대로 서서히 갖추게 할 수 없고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한 피조물이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특성이 아니고 인간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내 의지와 내 권세로 생명으로 생성한 고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창조의 작품인 인간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들이 이미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느린 성장을 마쳤을 때 비로소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왜냐면 인간은 타락한 원래의 영을 혼으로 이제 자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이라는 말은 항상 단지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거나 또는 위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당 된다. 반면에 물질적인 창조물은 항상 창조의 역사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내 의지가 이런 걸형체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물질적인 창조물이 걸형체로써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이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

피조물이 아직 자신 안에 인간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존재를 자신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 뜻은 어떤 피조물도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 자체가 내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이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형체로 존재를 제공한다. 창조의 작품.

B.D. No. 1907

1941년 5월 7일

**섬**기는 일 외에는 높은 곳에 도달할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섬기는 사람은 온전하게 되기까지 성장한다. 이전에 결함이 있고 불완전했던 일이 섬김을 통해 성정한 상태가 된다. 즉 존재가 섬기는 동안에는, 그가 섬기는 대로 그는 높은 곳으로 나가게 된다. 섬기려는 자세가 존재의 성숙도를 정하는 일에 결정적이다. 존재는 이제 항상 자유롭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섬기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기 때문이다.

존재가 인류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은 걸형체와 연결이 되면, 섬기는 기능을 아주 많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걸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크게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형체 안에 거하는 일이 존재를 어느 정도 성숙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체가 요청을 받게 되면, 형체는 또한 자신의 과제를 성취시켜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형체는 섬겨야만 한다.

섬기는 상태는 다른 존재의 의지에 아래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일이다. 섬기도록 허용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세가 되었음을 선언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걸으로는 성취할 사명이 없어 보이는 창조물도 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런 창조물이 절대로 자신 안에 더 높은 성장과정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포함하지 않은, 죽은, 영이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무생물이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창조물은 없다. 마찬가지로 비록 창조의 작품의 목적이 사람의 눈에 아직 숨겨져 있거나, 사람의 이성이 아직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체에 목적을 갖지 않은 창조의 작품은 없다.

모든 창조 작품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창조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창조했다. 어떤 것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계획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쓸모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가장 작은 창조물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장 작은 생명체도 자신의 기능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

사람이 이를 이해한다면, 창조된 모든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는 또한 영원한 신성을 이해하게 된다. 즉 영원한 신성의 존재가 그에게 선명해지게 되고, 그가 믿기를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지혜를 깨닫고, 또한 전능한 사랑을 느낀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작품이 이에 대한 증거를 그에게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기원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면 사람이 비로소 깨달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진리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깨우쳐줘야 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의 밖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인간의 과제와 목표에 대해, 인간의 출처와 인간의 최종적인 하나님께 귀환에 대해 설명해줘야 할 것에 대해, 열린 귀와 심장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의 섬김을 통한 구원. 묶임은 받은 상태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

B.D. No. 2084

1941년 9월 23일

어떤 존재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는 묶임을 받은 존재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있는 존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섬기는 일이 항상 자신의 곁형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존재가 더 자원하여 섬기는 일을 할수록, 그는 더 빠르게, 마지막 곁형체인 인간의 육체가 혼을 감싸게 될 때까지 곁형체를 바꿀 수 있다. 혼이 이제 마지막 곁형체를 벗어나 방해받지 않고, 짐이 없이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성취시켜야만 하는 과제는 다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혼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일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분주함과 추구하는 일 가운데 더 이상 이웃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실제의 과제를 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이 중심에 서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묶여있게 된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단계에서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섬기는 일을 정함 받는다. 그들은 어떤 의무의 상태에 있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게 되고, 그가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려는 동력이 심장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사랑이 불타 올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비로소 그가 이웃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는 추진력이 없고, 그는 이 땅의 과제로 그에게 부여된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 모든 인류가 이로 인해 병이 든다.

사랑을 행하려면, 사람이 아직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가 그의 심장 안에서 타오르면, 그는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힘이고, 그러나 힘은 절대로 활동하지 않고 머물 수 없고, 항상 일하도록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섬긴다. 이로써 그는 이전의 그의 죄짐을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한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은 그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견뎌온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동시에 곁형체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로써 혼이 마지막 곁형체를 벗을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혼이 하나님을 향한 이전의 태도를 포기했고,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이 되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완전히 극복했고,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화되는 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변형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고, 혼의 모든 부담이 제거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지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역사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이미 사랑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소원을 통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구원한 것이다.

아멘

성장과정. 의무의 법. 자유의지의 단계.

B.D. No. 5125

1951년 5월 6일

어떤 것도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그의 목적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섬겨야 한다. 가장 작은 창조물과 가장 작은 생명체도 그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고, 어느 정도 수행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왜냐하면 창조된 모든 것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즉 불법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법 아래 행한 일은 어떤 의미에서 섬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항상 다른 창조물에게 유익을 주고 창조물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목적이 없이 사명이 없이 창조된 창조물은 없고, 최종 목적과 사명은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이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대로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기여를 한다. 전체 창조물은 단지 영적인 존재를 구원할 목적으로 생성되었고, 모든 각각의 창조물은 의무 법 아래 이런 목적을 따른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의 생각과 의지하고 행하는 일이 의무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외적인 사람인 육체적 형체는 실제 아직 의무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육체가 아직 성장의 시작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어느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장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종속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라도 혼의 성장과 이 땅의 물질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일이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하려는 혼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다시 섬기는 일이 혼이 이 땅의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다. 혼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혼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인 사랑이 성장해야만 한다.

끝없이 긴 시간 동안 의무의 법 아래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이 이제 인간으로서 그의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를 통해 묶인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영적인 존재는 묶인 상태를 사슬로 느끼고, 자신이 원래 가졌던 힘과 빛의 풍부함에 대한 제한으로 느낀다. 인간의 혼이 이 땅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다면, 혼은 이 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에게 혼이 자신을 택하거나 혼을 자유롭게 못하게 했고 그러므로 그를 벗어나야만 하는 자신의 대적자를 택할 의지의 자유를 주었고, 그러므로 혼이 목표를 달성할 의무는 없다. 섬기는 사랑이 끝없이 긴 감옥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열쇠이다.

(1951년 5월 6일) 존재가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긴 과정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했던 일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자유의지로 행해야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증명한다. 왜냐면 사랑이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존재를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형성시키고, 존재가 교만으로 자유의지로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자녀권을 깨닫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는 사랑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 일이 그가 절대적으로 합격해야만 하는 그의 이 땅의 삶의 시험이다.

인간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인간 단계에서 위로 성장하는 대신 가만히 있거나 심지어 퇴보하면, 그는 또한 의무 단계 아래 아주 긴 성장과정을 헛되이 간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가 다시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는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거치는 그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스스로 자신이 묵임을 받는 기간을 정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하나님이 존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존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아멘

의무의 법칙 아래서 섬기는 일.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일.

B.D. No. 7840

1961년 3월 3일

**너**희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을 추구한다. 왜냐면 한때 나에 의해 창조되어 나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로 분해되어 나에게 귀환을 목적으로 각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입자들이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창조물들을 영적인 존재들의 저항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합한 것으로 인식했다.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 안에서 항상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의무의 법칙 아래 내 뜻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의무의 법칙 아래 섬기기 때문에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섬기는 일은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이다. 비록 의무의 법칙 아래 사랑이 사랑으로 올바르게 깨어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서서히 다시 영원한 기본 법칙에 복종한다.

이를 통해 나와 떨어져 있는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존재들은 언젠가 다시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되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고 이제 자신이 동인이 되어 섬긴다. 그러나 그러면 섬기기 위해 그에게 사랑이 요구되고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사랑을 나에게 다시 드린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사랑의 근원인 나와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지를 받은 영적인 존재인 너희 사람들이 만약에 실패하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사랑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이런 성장 과정이 정체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너희는 이 전의 모든 성장 과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 너희는 깊은 곳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이로부터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의 의지를 정할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다시 퇴보하는 일이 주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권면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주변의 창조물들을 관찰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극복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자신에게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섬겼고 이런 섬기는 일을 통해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를 받게 하는 성장 정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성장 정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모든 심장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곧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곧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축복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퇴보하여 모든 긴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하는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이 과정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두움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빛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너희를 위해 활용하라.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너희의 상태와 운명에 대해 생각하라. 너희의 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직 너희에게 있는 영적이지 못한 충동을 벗어나는 일에 너희를 사랑으로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다시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하기 전에 너희의 상태였던 원래의 성품을 덧입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빛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다시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너희가 이제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로 스스로 높여야만 하는 최고로 가능한 성장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런 긴 성장 과정을 가게 했다.

나는 너희의 출처이다. 너희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가 언젠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고 내 끝없는 사랑이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을 지라도 너희를 버려두지 않은 것에 대해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은 즉 너희가 자유로운 신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에 관해 정할 수 있는 너희의 귀환은 내가 내 사랑과 내 권세로 강요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정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제한이 없고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함께 할 것이다.

창조물의 과정을 여러 번 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빛의 나라  
에 대한 깨달음.

B.D. No. 3345  
1944년 11월 25일

영적인 존재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마지막 삶의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먼 길을 가야만 했다. 그는 많은 형체를 거쳐야만 했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야만 했고, 자유를 빼앗겼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 땅의 과정을 가도록 강요를 받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유를 되찾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먼 길을 갔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존재가 최종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 되어 한다. 영적인 존재가 의무 단계에서 행한 일인 섬기는 일을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가 사랑의 자극을 받아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존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섬기는 길을 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는 짧은 시간 내에 마지막 형체를 극복할 수 있고, 그가 다시 자유롭고 행복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빛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목표이고 목적이다. 이런 목표가 이제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가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가 실패할 수 있다. 그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마침내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때로는 여러 번 가야만 한다.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이 새롭게 성숙할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존재가 높이 성장하는 과정을 갈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요구한다. 이 것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다. 사람들의 영이 깨어남으로 영적인 존재의 원래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그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그의 위대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빛의 나라에서 그들의 눈 앞의 모든 베일이 사라지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영원한 창조주의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무한하게 충만한 사랑의 돌봄을 알고,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강박함과 영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안의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영적인 존재가 한때 대적자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은 또한 대적자에게도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성숙한 영적인 존재는 이 전의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상태에 두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다시 얻기 위해 시도한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저항과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 알게 되고, 그는 이제 영적으로 깊은 곳에 자신을 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의 죽을 것 같이 된다.

이 땅의 과정이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될지라도, 이 과정이 영적인 존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줄지라도, 존재 자신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자신이 이런 과정을 가게 한 것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왜냐면 이 축복이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저항 가운데 겪은 모든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모든 새로운 창조물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지식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아멘

빛의 나라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B.D. No. 5421

1952년 6월 26일

**십**자가에 못박힌 구세주의 이름으로 하늘나라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지만 그러나 구세주를 깨닫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혀 있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너희 사람들은 구세주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로 알려진 두 세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두 세계가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가진 세상을 만든 반면에 하나님편에 선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렀고 따라서 또한 온전하고 빛과 제한이 없는 힘의 영역에 머물렀던 것에서 구해야만 한다.

두 세계 사이에는 연결이 이뤄질 수 없다. 왜냐면 서로 너무 크게 상반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떤 의미에서 반대의 극을 위해 추구하고, 절대로 한 극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었다. 이는 두 영역의 지배 세력이 서로 완전히 반대이고, 자유와 빛과 힘을 가진 최고로 온전하게 되는 일과 최고의 역사를 행하도록 정함받은 영적인 존재가 노예가 되는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설명으로 더욱 이해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세계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 어두움의 편에서는 이 간격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머문 영의 세계에서는 그의 거주자들이 깨달음이 있었고 이로써 또한 다리를 건설하는 유일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영의 세계에서 온 존재가 어두움의 영역으로 가는 시도를 해서, 그곳에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존재가 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존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그런후 어두움의 세계의 주민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고, 이로써 그들이 그의 모범을 통해 자극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신 목표가 위에 있는 인간 예수와 같은 방향을 추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만 했다. 다시 말해 인간 예수는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떠났던 나라로 돌아갔다.

위로 향하려는 의지는 항상 옳은 길을 찾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런 의지가 부족했고, 의지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왜냐면 부정적인 세력들의 역사가 항상 어두움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이런 세력들은 단지 하나의 목표인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존재로부터 깨달음을 빼앗는 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의지가 어두움의 권세자와 그의 역사에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모든 불리한 영향에 저항이 없이 노출되어 있고, 빛의 세계는 이를 알고 있었고, 한 원래 창조된 영이 자신

의 의지와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악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이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생성된 형상들인 하나님의 두 자녀가 싸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같은 뜻과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빛의 존재가 먼저 신적인 힘을 빼앗는 걸형체를 입는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했다. 빛의 존재가 인간으로서 모든 타락한 영들을 인간이 되게 만든 자와 싸워야만 했다. 빛의 존재가 하나님의 대적자보다 강하면 대적자의 힘이 꺾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를 물리칠 희망이 있게 되고 이로써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상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의 혼이 높은 곳에서 어떤 것을 가져와 이 땅에 비취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다. 어떤 존재도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든지 타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 꺼질 수도 있고, 이 사랑이 빛의 나라로 가는 다리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위로 향해 영원한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항상 사랑이 있는 곳을 구하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랑이 빛의 존재가 이 땅으로 내려가게 했고, 사랑이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어 머물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 다리가 세워졌다. 그러나 어두운 이 땅의 존재들은 이 다리를 볼 수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활용하지 않고, 빛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인도자를 찾았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대적자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의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열어 준 유일하게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머문다. 왜냐하면 아직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을 받는 그가 자신의 저항을 포기하고, 그의 무한한 사랑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끄는 길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그가 영원한 질서의 법을 자원하여 따를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B.D. No. 6145

1954년 12월 25일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과 영의 나라 사이에 연결이 이뤄졌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먼 간격 때문에 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은 인간의 혼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

을 들을 수 있게 자신을 형성할 때 단지 가능하고 혼을 이런 상태로 만드는 일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다.

인간 예수는 사랑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생각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의 몸과 혼의 모든 어려움을 돕는 일이었다. 그의 혼은 빛이었고 순수했고 그의 이 땅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 인간 예수의 혼이 영이 자신을 표현한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회복되었고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자신이 성취한 일과 같은 일을 성취하려는 추구를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쳤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이로써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게 했고 이제 영의 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도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이로써 그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정도에 도달했고 이런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했다.

하나님은 실제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자신의 심장을 이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정화 된 심장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는다. 인간 예수는 지극히 높은 혼의 성숙한 정도에 도달했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이 전적으로 모두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 말했고 이제 더 이상 인간 예수 자신이 말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행했다.

예수는 자신의 이웃을 가르쳤고 자신의 사랑이 그에게 준 일을 이웃도 또한 성공시키도록 이웃을 돕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랑을 가르쳤고 항상 또 다시 사랑을 가르쳤다. 그의 큰 사랑에서 지혜가 나왔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의 불에서 깨달음의 빛이 발산되었고 예수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깨달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모든 더 깊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왜냐면 더 깊은 지식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게 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장 깊은 지식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룬 것이다.

인간 예수는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서 높은 곳의 아버지께 올라가는 길을 보여 주었다. 그는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의 삶을 살았고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사람들의 몫이 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의 최고점이 되게 했다. 이로써 그가 이제 사람들이 길을 갈 힘을 얻게 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고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게 했다.

아멘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B.D. No. 7056

1958년 3월 5일

**내** 이 땅의 삶도 너희가 극복해야만 하는 같은 시험과 싸움이 있었다. 나도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입자들을 올바른 질서 아래 두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나는 정욕을 알았고 이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나도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안의 의지의 능력이 연약함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나는 내 육체에 강제를 행했다. 나는 내 육체가 내 혼을 능가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하고 종이 된 인류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힘으로 육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짓누르는 위험을 보았다. 내 안에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의 육체적인 갈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갈망을 따르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내 육체의 욕망에 주의하고 성취시켰다면, 단지 내 도우려는 의지가 약해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어려운 싸움이였다. 왜냐면 모든 방향에서 유혹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내 안의 인성이 만족을 구했다. 그러나 내 혼은 하나님께 향했다. 혼은 공격이 심해질 수록 항상 더욱 아버지와 연결이 되길 구했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 왜냐면 아버지와 연결이 절대로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에 너희의 과제와 같은 사랑을 최고로 확산되게 하여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을 모든 충만함으로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는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이다.

비록 내 혼이 빛의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그러나 혼은 너희의 육체와 같이 물질인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권세를 아직 가지고 있는 대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에게 항상 모든 종류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게 재촉하는 아주 큰 공격을 받았다.

내가 인간으로써 이에 패배하지 않게 된 일은 단지 저항하게 내 안의 의지를 강하게 한 내 안의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 어둡고 죄악 된 환경 안에 거하는 일이 악한 영들이 외부로부터 육체를 공격하는 기회를 주었고 유혹하는 장면들로 현혹시키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 현혹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내 저항을 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언젠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도 공활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권세로 이런 악한 영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었고 인내와 온유로 대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항해야만 했고 그들이 나를 떠날 때까지 내 사랑의 의지로 그들을 달래야만 했다.

나는 인간이었고 인간처럼 싸우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런 모든 일이 내가 내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완성하기 원했던 구속사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연합이 되는데 도움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일이 가능한 일임을 증명해주기를 원했다. 즉 사랑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임을 증명해주기를 원했다.

내 안의 사랑이 인간인 나에게 불행한 상태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너희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구속사역을 목적으로 내 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주었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써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힘으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요청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내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었고 모든 욕망에 내 대적자가 내 안에서 깨어나게 하기 원하는 모든 순수하지 못한 생각에 저항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항상 내 사랑으로 대적자에게 대항했고 대적자는 사랑을 피해야만 했다. 이로써 곧 내 심장 안에 단지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더욱 긴밀하게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었고 영원한 사랑은 사랑을 나에게 선물하고 이제 내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어 내가 강한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게 했다.

그렇지라도 대적자는 물러서지 않고 항상 또 다시 내 의도를 그가 볼 수 있게 될 수록 더 많이 나를 유혹하면서 내 육체를 특별하게 공격했다. 나는 내 죽는 날까지 그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고 항상 또 다시 내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서 내가 내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했다.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와 연결이 더 강했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했다.

나는 인류의 끝없는 비참함을 보았고 항상 강해지는 사랑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단지 나 자신의 걸형체였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은 사랑이었다. 인류의 죄짐을 사해준 것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다.

B.D. No. 8331

1962년 11월 18일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은 쉬지 않고 섬기는 삶이었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해 사람들이 사랑의 삶의 축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그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왜냐면 빛의 나

라로부터 그의 혼이 이 땅에 임했던, 그가 이 땅에 사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는 원죄의 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죄는 존재들이 전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그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한 일이다. 예수는 아버지와 가장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 이 사랑을 이 땅에 가져왔다. 그의 사랑의 힘으로 그는 사랑이 없는 일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어두운 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전혀 사랑이 없고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에게 전적으로 빠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위험을 공황히 여겼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사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섬겼다.

그는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그들을 연약함과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이 단지 사랑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면서 영적인 고난을 감당했다.

왜냐면 그는 타락한 형제들의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해야만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단지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의 삶을 통해 그들이 다시 그들의 원래의 성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단지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쉬지 않고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그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왜냐면 예수의 이 땅의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 이미 어떠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고 그럴지라도 자유의지로 이 길을 갔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아주 큰 속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위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는 단지 특별한 고난의 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 길을 진실로 인간 예수가 갔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의 육체 안에 영원한 사랑 자신이 거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계속하여 받았다. 이 사랑이 그에게 구속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의 혼의 빛의 혼이었다. 단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을 담고 있는 육체만이 이 땅에 속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육체를 영화 시켰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 그의 도움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왜

냐면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고 고난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원죄가 그들을 아직 누르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을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려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 가져 가고 그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한다. 왜냐면 그는 인간 예수가 그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매한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사랑과 고난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혼은 이제 모든 불순물을 버릴 수 있다. 사랑과 고난이 이런 일을 이룬다. 예수님의 관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는 십자가를 지는 자로써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를 따라야 한다. 그는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부터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능력을 얻었다.

너희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요청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육체의 겉형체 안에 거한 영원한 사랑 자체이고 이 겉형체를 전적으로 영화 시켰고 육체를 충만하게 비추어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존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통해 자신을 그거 원래 초기에 가졌던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완성시켜야만 한다. 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피처로 삶을 때 그를 뒤 따라 사랑과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B.D. No. 7035

1958년 2월 6일

**시**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 의지로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은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 지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면 단지 말만으로 충분치 않고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만 하고 진지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진지한 의지를 알아 채자 마자, 너희에게 능력이 제공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도무지 진지한 의도를 갖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한 결정이야 말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지의 강화를 체험하지 못할 때 너희가 전혀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를 향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의지의 연약함에 빠진다. 그러므로 자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나를 향한 의지의 변화

가 내가 그를 구속역사의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내 영을 통해 그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그가 내적인 촉구를 따르면, 그는 능력을 받는 일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비로소 확실한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한다. 왜냐면 이 도움이 없으면, 내 원수 곧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가진 내 대적자의 공격으로 그의 의지가 항상 계속 마비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그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나에게 드러진 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단 한번 내면에서 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대적자에 대항해서 싸울 권리가 있다.

만약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쉽게 약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의지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며 이로써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혼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의 도움은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지 않고 실제 이웃 사랑을 행할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랑의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법을 잘 알고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심장을 굳게 해서 그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안다. 이런 추종자들은 사탄의 진정한 종들이다. 왜냐면 그들은 영적 성장에 결정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에는 나는 그의 의지를 이미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의지가 아주 약해 내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평가하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사역을 요구하는지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진지한 도우려는 의지가 있지만 강요에 의해 실행하지 못해야만 하게 된 경우 행한 것과 같이 평가하는지 너희는 설명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진실됨이 부족한 유일한 의지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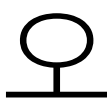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의 의지는 아주 연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한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목표인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을 큰 열심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희의 목표는 나를 향한 사랑이 커지고 너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이로써 너희가 하늘나라를 얻는 일이다.

아멘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B.D. No. 7857

1961년 3월 24일

 , 너희 모두는 내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 사랑의 삶을 살고 인내를 행하며 이웃들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이웃의 사랑

을 얻으려고 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로 하여금 너희를 보범으로 삼고 내 뜻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되게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바꿔야만 한다. 너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너희의 모든 원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이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의 악의에 찬 말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을 재판관에게 송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내하며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그가 올바른 길을 가게 그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도와야만 한다. 모든 의지와 행동에 내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진실로 사랑이 충만했던, 항상 도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던,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너희가 시도하는 일을 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를 대신에 행하면, 어떻게 행했을 것인가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 심장이 너희가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게 고귀하지 못한 생각이 더 이상 너희 심장에 거하지 못하게 항상 답변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이웃들이 오류 가운데 머물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해야 한다. 왜냐면 오류는 어떤 축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류로 깨닫는 것을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알려주고 그가 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나 자신에게 올바른 생각과 설명을 구하게 맡겨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를 오류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나는 항상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고 너희 안의 아직 어두운 곳에 빛을 선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심장에서부터 나에게 질문하면, 심장에서 답변을 기대하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안에서 선명한 답변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너희가 이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내 뜻이다.

이를 위해 너희 혼자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생각에 너희가 빠지게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구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 안에서 선명함을 느끼게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심장 안에 이런 의지를 답변으로 넣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너희 모두는 스스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를 오류와 잘못 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면,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시도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아버지를 필요로 하다.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역사한 것처럼 항상 단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의 이 땅의 길은 항상 단지 사랑에 의해 정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를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진실로 구속하는 일을 행한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

B.D. No. 7129

1958년 5월 24일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과제를 성취시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일이나 또는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너희가 축복된 일을 완성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 행하면, 즉 내가 없이 나에게 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일하면, 너희는 많은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거나 또는 너희가 이 일을 항상 성공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는 일이 이미 너희에게 내 도움을 보장하고 너희가 의식적으로 내 축복과 지원을 구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너희에게 좋게 되도록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모든 평안 속에 너희의 매일의 일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너희가 항상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하는 일에 내 축복을 요청함으로써 너희 주변에 보호벽을 세우지 않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항상 너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에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들어오는 일을 막는 일보다 어두움의 세력을 다시 물리치는 일이 더욱 어렵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 의지가 단지 모든 힘을 드러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회복하게 된다.

너희 혼을 위한 싸움은 계속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주 너희가 승리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자주 너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왜냐면 너희가 제한이 없는 능력을 요청할 수 있고 내 인도와 내 보호와 내 축복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항상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내가 없이 너희의 매일의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심장으로 내 이름을 불러야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하고 너희 자신을 제한이 없이 나에게 드러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너희를 감싸고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쾌활하고 염려 없이 힘과 내적인 평안을 느끼며 너희의 매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너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항상 임재해 있고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와 내적인 연결이 세상 일에 또는 영적인 일에 관련 된 너희의 모든 계획이 성공한다는 가장 좋은 보장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여 너희 생각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올바르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분리되게 하고 연결을 느슨하게 하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준 너희에게서 내적인 평화를 빼앗는 생각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항상 더욱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하는 다른 생각이 너희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은 이제 내적인 갈등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해서 너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 혼이 어두움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너희가 나를 도피처로 삼으면, 너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영적인 위험에 있는 너희를 도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어두움의 세력과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너무 연약하고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에 당하게 된다.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나에게 그리고 내 보호 아래 너희 자신을 맡기고 항상 또 다시 내 축복을 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육체적인 행복과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나에게 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지 않으면서 이로써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고백하면, 너희는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대적자가 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세운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나와 내 이름 앞에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단지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대적자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멘

## 섬길 것인가? 싸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 싸울 것인가? 고난의 여러 가지 목적.

B.D. No. 3230

1944년 8월 24일

**자**유의지의 단계에 있는 존재가 단지 사랑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대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이긴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을 행하면, 대적자들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행하는 일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고,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지속적인 싸우는 삶을 살지 또는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지 스스로 정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알고, 그에게 필요한 일이 일어나게 한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향했다는 표시인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권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를 능가해야만 한다. 자원하여 섬기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의해 그렇게 크게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 그는 이런 유혹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고난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 야만 하는 일이 그에게 없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단계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각자의 고난에 대한 느낌은 다르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권세에 굴복하기를 싫어 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아직 세상을 추구하고, 모든 고난을 퇴보하는 일로 여기고, 생을 즐기기에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강요로 여긴다. 그가 순복하게 되기 까지 많은 고난이 필요하다. 세상과 세상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얻으려는 대적자가 사람들의 눈앞에 세상과 세상의 기쁨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욕구를 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지게 만들려는 싸움은 대적자의 역사이다. 그럴지라도 사람이 사랑을 행하면, 이런 고난이 단지 그의 완성과 혼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그에 대한 권세가 적어지고, 그는 세상을 등지고, 고난을 통해 항상 더욱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고난이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해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과 하나님을 찾기 위해 걸보기에는 더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깨닫게 되어야만 한다. 고난은 항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 목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을 쫓는 일과 사랑 없음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전적으로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세력 안에 있고, 그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심한 양육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을 향한 추구를 줄인다면, 비로소 그 안에 사랑이 점화될 수 있고, 그러면 고난은



다른 형태를 띠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혼의 불순물이 전적으로 제거될 때 까지, 고난이 전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 그의 성장 정도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고난의 깊이를 정하는 데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발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를 짓누르지 않게 되어, 쉽게 견딜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때가 되면 모든 고난을 너희로부터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며, 견디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와 사랑하는 능력에 따라 섬겨야만 하거나, 싸워야만 한다.

섬기는 일이 그에게 쉬울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혼을 흑암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권세에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사는 동안에 그에게 영향력을 가진 권세에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에 큰 능력이 필요하다. 사랑이 비로소 그를 이런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랑이 비로소 그를 강하게 한다.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극복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아멘

싸우는 일이나 또는 섬기는 일.

B.D. No. 5913

1954년 3월 24일

**너**희가 싸워야만 하거나 또는 섬겨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싸움은 너희 이웃 사람을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고 또한 연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그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너희 자신에 대한 실수와 도덕적인 결함과 죄악과 정욕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면,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유익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 다른 길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너희가 섬기는 일을 하면, 너희는 동시에 너희 자신에 대해 승리하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성품을 바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기 위해 필요한 힘을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얻게 된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왜냐면 첫번째로 너희가 이제 거만함을 극복했고 너희가 겸손하게 되었고 이제 제한이 없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대항하는 싸움을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다른 형태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정욕에 대한 모든 사랑 없음에 대해 승리하게 한다.

싸우는 일이나 또는 섬기는 일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된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싸우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 자신의 이웃을 항상 섬기고 형제가 되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목표를 정하는 사람보다 아주 적은 저항을 받는다. 왜냐면 계획적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목표를 정한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항상 섬기고 형제가 되는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베푸

인내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우거나 섬겨야 한다. 왜냐면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어려운 내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무기로 싸우는 싸움은 항상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진실로 더 강한 사람이고 항상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실제 또한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 그가 기도하면, 그에게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 그는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운 싸움 후에 그의 자기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변화되고 그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얻으면, 비로소 그의 성품의 변화가 이뤄진다.

아멘

인생의 사명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B.D. No. 6202

1955년 3월 1일

**너**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이 땅의 삶의 과제이다. 너희는 단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유일하게 너희 혼의 성숙한 정도를 높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유일하게 너희의 죽음 후에 너희가 빛이 있는 축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너희 심장이 강박하게 머물고 너희가 섬겨야 할 곳에서 다스리기 원하면, 다른 모든 노력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단지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 사랑을 통해 이전의 죄를 만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전의 죄는 너희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가 전혀 사랑이 없이 나에게 반역한 그를 따르기 위해 사랑을 거부한 일이다.

너희가 한때 거절했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이 단지 너희에게 주어졌고 너희가 자신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증명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너희의 의지의 변화를 증명하도록 이 땅의 삶이 단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끝 없이 축복되기 위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면, 너희는 사랑을 무시할 수 없다. 너희가 이를 아는 지식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지식은 너희에게 소용이 없다. 너희에게 항상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너희는 항상 너희 주변의 고통을 보게 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항상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가능하면, 그들을 돕지 않고 너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너희 자신이 부족함으로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베푸는 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이성이 역사하게 하라. 나는 이를 또한 너희에게 추천하기를 원한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더 해를 끼치지 않게 한다. 왜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가능한한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나 자신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험과 경솔함을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실제 위험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이웃의 경솔함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솔함은 큰 악이므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랑이 도움을 주는 개입을 하는 곳에서는 고난이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편으로는 사랑을 깨닫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깨닫게 되면, 내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 그가 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그에게 열린다. 그러나 단지 이웃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합당한 자격이 없고 고난이 그가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난이 자주 내가 사람을 나를 위해 얻기 위해 사용하는 양육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난이 그를 나에게 이

끌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도피처로 삼게 하고 나는 이제 그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동안에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대적자에게 향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 나는 단지 고난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나를 목표로 삼고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나에게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부름을 들을 것이고 때가 되면, 도움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을 행하라. 이웃에게 부족한 것을 주라.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 이웃에게 주는 모든 것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멘

섬기는 일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아는 일.

B.D. No. 1786

1941년 1월 25일

**아**직 형체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이 자유를 추구한다. 존재는 강요를 받고, 이 강요를 고통으로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박탈하면서 존재에게 행하는 강요가 결코 존재에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존재 안에 묶임을 받는 바로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는 갈망을 강하게 하는 점에서 도움을 준다. 존재는 이제 전에 거부했던 일을 행하려는 결정을 하고, 섬기려는 자세를 갖는다.

따라서 섬기는 일은 동시에 자유롭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섬기는 일을 할 올바른 의지가 없는 존재는 또한 족쇄를 견뎌야만 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따라서 존재는 섬기는 관계에 들어가기 거부하는 동안에는 존재는 고통의 상태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존재는 겸손하게 다른 존재의 고통의 상태를 줄이는 일을 해야만 한다. 다른 존재가 짊어져야 할 무언가를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는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그가 섬기는 존재를 구원하게 된다.

존재가 이제 더 자원하여 섬기는 관계에 들어 갈수록,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의 모든 의지의 결박을 풀기 위해, 존재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섬기도록 강요받지 않고, 마지막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자원하여 섬기려는 자유로운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묶인 의지를 느슨하게 한다.

그러나 자원하여 섬기는 일은 또한 섬기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지식을 전제로 한다. 존재에게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만 한다. 존재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남겨 둘 수 없고, 존재가 이 땅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존재에게 묻기 전에, 존재에게 알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지식을 알려줘야만 한다. 존재가 다시 섬기도록 강요를 받은 가운데 섬긴다면, 그런 섬김은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존재에게 섬기거나 또는 이런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져야만 한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이 땅의 오랜 과정을 거친 존재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야만 하고, 그가 행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적자의 의지를 아직 완전히 패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신적인 존재는, 대적자가 완전히 패배했을 때, 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사람과 대적자 사이에 아주 작은 관계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갈망이 단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람이 섬기게 한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오만함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적자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한다. 그는 이제 자신을 묶는 모든 형체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기 위해, 되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는 원래의 상태에 도달했다. 존재는 자신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과 힘이 되었다.

아멘

육체의 길. 이 전의 삶에 대한 지식. 섬기는 일.

B.D. No. 1943

1941년 6월 7일

**무**임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존재는 육체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마치기 전에는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존재는, 모든 걸형체가 존재에게 강제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 육신을 입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이 땅의 투쟁에 임한다. 존재는 이 과제에 필적할 수 있게 성장했다고 느끼고, 이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육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촉구한다.

혼들에게 이 땅의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또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성숙의 정도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혼들에게 그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분량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비록 혼이 자신의 이 전의 형성에 관한 의식을 빼앗기고, 이제 완전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시작할지라도, 혼은 마지막 과정을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혼이 이전에 더 자원하여 섬겼을수록, 혼은 이제 이 땅의 요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혼은 또한 이 땅의 삶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섬김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자원하여 선언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에게 이제 섬기려는 의지가 흔들리는 삶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는 삶의 모든 기쁨과 편안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혼은 이제 아직 섬길 자세가 되어있는 지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은 저항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고, 이런 저항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이제 이전에 열심을 가졌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일이 비로소 혼을 자유롭게 한다. 섬기려는 의지가 혼에게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는 은혜를 주었지만, 그러나 행하는 의지가 혼을 마지막 형체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고, 혼이 행할 것을 약속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존재는 혼 자신이다. 왜냐면 비록 혼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혼의 걸형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 족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아직 혼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걸형체를 영원의 세계로 가지고 간다. 다시 말해 혼은 이 땅의 육체 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영의 족쇄를 느낀다. 혼이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할 때까지 이런 족쇄를 느껴야만 한다. 어떤 존재도 육신을 입는 이 땅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의 묶임을 받은 상태를, 실제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을 단지 연장시킨다.

성숙하지 못한 혼은, 이미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그의 섬기는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섬기려는 의지가 자주 아주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지를 행동에 옮기게 하려면, 두 배의 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처럼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게 된다. 이 땅에서는 아주 작은 의지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는 그의 형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이 땅의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아멘

섬기는일 게으름의 죄악.

B.D. No. 2299

1942년 4월 12일

**이** 땅의 삶의 과정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섬기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견딜 만하게 되려면, 항상 활동해야 한다. 존재가 섬기는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면, 이런 일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 일어난 죽음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인간 단계에서 존재에게 자유롭게 봉사하거나 활동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런 일이 이전의 단계에서처럼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게으름이 혼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게으름수록 더 심한 부담을 준다. 혼이 활동하지 않는 일을 높이 성장하는 일에 장애물로 느낀다. 혼은 그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혼은 더 많이 육체에게 향하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혼이 이 땅의 과제를 소홀히 하면, 혼은 또한 저세상에도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삶의 영향의 결과인 고통스런 상태를 바꾸기 위해 주어지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혼은 저세상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자신의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박을 받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혼은 이 땅에서 처럼 산만함과 세상소원의 성취를 갈망할 것이지만,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혼의 활동하지 않는 삶의 결과로 혼에게 활동하려는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이런 상태는 아주 희망이 없는 상태이다.

이 땅에서 힘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제공이 된다. 사람은 이 힘을 사용해야 한다. 혼은 이 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단지 섬기는 일을 통해 혼이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물질 안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힘을 자신의 혼을 위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면서, 잘못 사용한다. 게으름이 동시에 사람에게 퇴보를 의미하는 죄에 빠질 위험이 없다면, 이런 일은 정지상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게으른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의 모든 안락함을 제시하고, 사람이 이런 안락함을 쫓도록 촉구하는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즐기려는 욕망과 탐식과 육체의 욕망이 그로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하고, 몸과 혼을 약하게 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 이 땅의 재물을 향한 욕구가 커진다. 혼이 이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의 충동을 따르지 않으면, 혼은 이제 이 땅의 실제의 과제를 전혀 성취시키지 못한다.

혼이 아직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혼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큰 의지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긴밀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갈망은 함께 하고, 사람은 영적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삶으로 인해 혼은 저세상에 심한 댓가를 치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이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의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이 스스로 활동을 갈망할 때까지 견뎌야만 하고, 혼이 스스로 활동을 갈망할 때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멘

거만.

B.D. No. 5341

1952년 3월 21일

**오**웃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단지 그럴 때 사랑을 행하여 모든 오만함을 제거한다. 사랑이 이웃을 형제로 여기도록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든 계급 또는 신분의 차이를 보상한다. 섬기는 사랑이 너희 안에 참된 행복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섬기는 이웃 사랑을 하는 가운데 너희는 예수의 참된 추종자가 된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너희를 위해 올바른 삶을 모범을 보이며 살았고, 진실로 모든 충만한 빛과 힘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배하지 않았고, 그의 이웃이 자신을 섬기게 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섬겼다. 이런 일이 그를 세상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들을 다스리는 자로 높였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의 걸 형체 안을 거처로 삼았고, 그를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오만함과 지배욕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타락한 자의 특징이다. 만약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높인다면, 너희는 자원하여 타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유혹을 받도록 허용하고, 그의 자질과 그의 악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너희를 너희 이웃 위로 높이지 말라. 너희의 이웃은 진실로 너희의 형제들이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에게 단 하나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너희를 쉽게 타락하게 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오만한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인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참된 사랑은 겸손과 하나이지만 오만함과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 항상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증거하고, 이는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 너희가 거만하게 다스리기보다 겸손하

게 섬긴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오만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오만함은 내 대적자의 일부이고 그러므로 단지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이웃 사랑은 분명히 세상의 재물과 명성과 권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은 불멸하고 언젠가 내 나라에서 혼이 정산을 받을 영적인 가치를 얻게 한다. 이런 가치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웃을 억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과 풍부한 권세를 얻게 한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불의하게 얻은 것이 너희를 위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말라. 그러나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취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취하고,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 반면에 섬기는 사랑은 제한이 없게 주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준다. 섬기는 사랑은 진정한 겸손이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한다. 섬기는 사랑은 진정하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확실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영원한 아버지께 인도한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B.D. No. 7308

1959년 3월 14일

**섬** 기려는 의지는 겸손하게 되려는 것이다. 이 의지는 사탄의 자식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아직 볼 수 있는 그러므로 그가 모든 능력으로 싸워야만 하는 교만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지배하기를 원한다. 거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인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자신을 섬기게 강요하기 원한다.

교만한 사람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 그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교만한 영에 진지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가 자신 안에서 섬기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는 교만한 영에 대항한다. 그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를 진실로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는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다른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겸손이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이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 겸손은 항상 돕고 섬기려는 의지를 통해 증명 된다.

사람이 겸손하게 살면, 그가 모든 거만에 대항해 싸우면, 그는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과 실수를 의식하고 그의 모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아주 깊게 낮은 것을 의식하면, 그는 전적으로 다른 성장단계에 들어선다. 그는 이에 합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진실로 겸손하게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그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연극이나 외적인 형태가 아니고 깊은 내적인 겸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한다. 이로써 부족함을 벗어나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심장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려는 그의 의도가 강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내 대적자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이뤘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비록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많은 작업을 해야만 할지라도 항상 대적자로부터 돌이킨 것을 전제로 하는 온전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이제 행하는 섬기는 사랑은 곧 그의 모든 성품을 사랑으로 바꾼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버지의 심장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영원한 사랑과 연합되고 이로써 온전함에 도달한다. 사람에게 진정한 겸손이 부족한 동안에는 그의 성장하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진정한 겸손이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증명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확실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아직 불씨만큼의 교만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는 연합이 되기까지 아직 먼 길에 있다. 왜냐면 이런 동안에 항상 대적자가 참여하여 그에 대항하는 싸움을 모든 의지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승리를 주는 섬기는 이웃 사랑에 빠지면, 그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자신의 덕스럽지 못한 점과 죄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가 자신에 대해 솔직하면,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현저하게 멀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자기 성찰이 그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깨닫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섬김. 가난. 베풀려는 의지.

B.D. No. 3918  
1946년 10월 29일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의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만 한다. 즉 전적으로 모두 그의 신적인 인도에 너희를 맡겨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그의 의지 아래 뒤야만 하고, 그러므로 너희 삶이 단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원해야 하고, 항상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진실로 너희 혼을 위해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너희 삶의 방식의 원칙으로 삼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세 상적으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다. 너희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거나 또는 평범하고 연약하거나, 너희는 이런 일을 사람의 모든 형편에서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섬기기 원하면, 너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어느 누구도 베풀 수 있기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의 베풀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줄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전혀 물질적인 소유가 없을지라도, 그는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이로써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가 베풀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의지는 선한 행실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사랑의 행동도, 보여주는 행동에도, 심장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단지 심장을 보고, 심장 안의 어떤 움직임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없다.

진실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적은 것을 베풀 것이다. 그는 염려하며 질문하지 않고 나눈다. 그는 몇 배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왜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며, 자신의 소유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작은 소유가 지금까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성장한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의 인도는 목표에 도달하는 일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항상 심장의 사랑의 인도를 받게 하고,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의 은혜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는, 이 한 가지 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 가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게 공급하는 영원한 사랑 자신과 기도로 연결되면, 너희는 가장 큰 육체적인 영적인 위험 속에서 도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 주는 일의 기쁨. 응답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

B.D. No. 4986  
1950년 10월 21일

**너**희를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너희 안에서 사랑의 불을 지피우려고 하라. 항상 새로운 양분을 주어, 너희를 영원히 축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제한이 없는 자유 가운데 힘과 빛이 충만한 상태를 보장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역사할 수 있고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한 것이다. 왜냐면 모든 무능력함과 모든 연약함이 너희로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살게 되고, 축복되게 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일어나게 해줄 수 없다. 너희는 이런 사랑을 스스로 너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야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면의 행복한 감정에 자극받아, 항상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행할 것이고, 너희는 항상 너희 안에서 불길을 유지하며, 불길에 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너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할 것이다.

주는 기쁨이 단지 너희로 하여금 또 다시 새롭게 사랑을 행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들을 돕는다면, 너희는 이를 체험할 것이다. 이는 세상의 보상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보상이다. 왜냐면 도움을 받은 사람의 너희를 향한 눈빛이 응답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이웃의 심장에 다시 사랑의 불을 지핀 것이고 너희가 불씨가 화염이 되게 한 것이다. 이 사랑의 불은 전파가 되 사람들에게 나눠진다. 단지 하나가 된 사랑의 역사가 인류를 인류가 처한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의 사역이 빛과 은혜를 주고 너희를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더 많이 식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이웃의 고난을 위해 심장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가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의 연결시킬 수 없게 벌어진 것이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의 심장의 어두움이 더 이상 물리칠 수 없게 되어버린 일들이 드러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빛이 비추어 질 수 없어서 밝음이 없기 때문이고, 도울 수 있는 한 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가장 심각한 일이다. 왜냐면 그들은 어떤 힘과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런 힘과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조언하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두운 영속에 즉 큰 위험 속에 있고, 그들은 이미 죽음 속에 있고 실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의 의지가 고백해야만 하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는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 영 자신이 너희를 밝게 해주어 너희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를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왜냐면 혼이 생명을 선택할지 또는 죽음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너희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했고, 마지막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스스로 빛과 진리 안에 서있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B.D. No. 5905

1954년 3월 17일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도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계산해서는 안 되고 내면에서 그렇게 주도록 추구하는대로 베풀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사랑으로 주는 것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고 너희가 사랑하면, 너

희는 계산하지 않고 손에 가득하게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 결과로 너희는 더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풍성하게 받을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절대로 부족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약속은 유효하다. 너희는 모든 곳에서 고통을 덜어줘야 하고 너희가 모든 곳에서 너희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한다. 영적인 위험이 세상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특별히 영적 보물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영적인 보물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그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들은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인 그들의 이웃에게 부족한 이웃이 축복되도록 돕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면, 내가 그들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할 것을 그들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 땅의 재물을 베푸는 사람은 영적인 재물을 얻는 동시에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땅의 재물을 받는다. 그의 부가 더 커질수록 그는 항상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베풀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그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표현이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타오르는 곳에서 나 자신이 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내 선물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의 심장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받고 베풀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선물은 단지 계산이나 형식이고 나는 그런 선물을 사랑의 선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웃의 고통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라. 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고통이 너희의 연민이 깨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심장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선물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나도 또한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사랑이 내가 주게 만들고 그러면 부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고 절대로 부족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과 은혜가 이제 측량할 수 없게 너희에게 흘러가고 너희는 내 약속에 따라 측량할 수 없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측량하는대로 너희가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악한 직업.

B.D. No. 6703

1956년 12월 1일

**모**든 사람은 이웃을 돕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공급해주었고 다른 능력을 주었고 서로 다르게 힘을 주었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아주 다르게 해주어 사람들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은사를 서로 교환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이웃에게 부족한 것을 이웃에게 줘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섬기는 이웃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의 이 땅의 삶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한편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항상 단지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 이웃을 섬기기를 추구하고 그의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이로써 기쁨을 주기 원하고 자신의 직업을 단지 보수를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직업 활동이 혼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존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나게 돌본다면, 그들은 항상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평온함과 평화의 상태와 어느 정도 염려가 없게 되는 일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서를 완전히 벗어났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단지 이 땅의 재물을 늘리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이웃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 반면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서로 간에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희생하여 자신을 더 많이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 거의 모든 직업을 단지 수입원만으로 간주하고 이웃에게 부족한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로 간주하지 않는 이런 특성이 모든 직업에 있다.

인간의 모든 일이 폭리를 취하는 제품을 만드는 일이 되었고 심지어 나와 내 나라를 위한 일에도 자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없고 이런 일조차도 자주 수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질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추구가 지배적인 곳에는 또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종말의 때에 인류가 처한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이 사람들의 생각을 채우고 있고 그러므로 내 대적자가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가 내 대적자의 세계이고 모든 물질은 인간보다 훨씬 낮은 차원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 또한 평화가 충만한 조화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었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가 큰 영향력을 얻고 물질적인 소유를 향한 갈망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진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자신의 힘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들이 이 땅의 재물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재물은 크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영적인 재물은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재물을 오랜 동안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세상 재물 외에는 보여줄 수 있는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을 향한 그들의 욕망이 성취되어 그들 자신이 물질이 될 것이고 그들이 굳은 속박에서 다시 풀려날 때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물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대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 25장 40 절)

B.D. No. 5886  
1954년 2월 24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날마다 매시간마다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고 친절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단지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격려와 또는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언과 행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너희가 위험을 보면, 너희는 단지 너희의 심장을 강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너희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한 번 도움을 주었다면, 이로써 무관심하게 되거나 충분하게 행하였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서 내가 축복하는 베푸는 사람의 축복된 느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나누어 준 만큼 같은 정도로 나로부터 다시 받는 일을 체험할 것이고 자신이 희생했던 세상의 소유물보다 그를 훨씬 더 크게 행복하게 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웃에게 나눠주면,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나를 사랑한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을 단지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나에게 증명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얼마나 큰 부유함을 모으는 지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행복한 가운데 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영적인 재물을 모으는 일이 실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사랑을 행하도록 권면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희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너희가 항상 나 자신이 구걸하는 자로써 너희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으로 제공하는 모든 선물을 알고 내가 축복하는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면, 너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성장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항상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고 사랑 안에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너희 모두는 내 자녀들이고 자녀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면, 자녀들은 아버지께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해주는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고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 모두가 사랑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완성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조언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감사하라. 왜냐면 너희가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뒤늦게 행하려고 시도한다면, 행할 삶의 능력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을 사랑을 행하는 기회로 활용하라. 이로써 너희가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 너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쓰라리게 후회하지 않도록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영의 나라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라.



물질을 재구성하는 일. 섬기는 일. 활동. 높이 성장하는 일.

B.D. No. 2333

1942년 5월 12일

 든 물질에는 영적인 존재가 함께 한다. 즉 물질의 실제 본질은 인간의 혼과 동일한 입자이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지식이 인간이 끊임 없이 활동하도록 자극해야 하고, 물질의 지속적인 변형이 일어나도록 자극해야 하고, 이런 변형에 도움을 주도록 자극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해방되기 위해 노력하고, 형체를 벗어나기를 구하고, 형체를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형체를 극복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다. 다시 말해 형체가 해체될 때까지 형체 안에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다.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 일하도록 허용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모든 물질을 이웃 사람을 섬기는, 즉 물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형체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활동이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위해 아주 축복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형체 안에 거하는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이 되고, 이는 영적인 존재에게 고통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또한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소유하려는 욕망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미 극복한 것을 추구하고, 이제 인간으로써 물질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해방되어야 할 것을 추구한다.

사물이 더 빠르게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용을 받을수록, 존재는 더 빠르게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다시 새로운 형체 안에서 살게 되고, 이로써 그의 목적대로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이웃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사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인간은 또한 자신 안에서 이런 축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에 의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이 자유롭게 되도록 도움을 준 인간을 좋게 여기고, 영적인 존재 편에서 그의 능력에 합당하게 사람을 돕기 때문이다.

인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끊임 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도 영원을 위해 옛 형체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자체가 자주 눈으로 감지할 수 없게 끊임 없이 변한다. 인간이 의지를 드러 어떤 목적에 합당한 것을 만드는 일이 물질이 살아있게 하는 존재를 위해 자신의 공적을 쌓는다. 인간이 섬기고,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섬긴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는 일을 통해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영적인 존재가 또한 영적인 성장에 유리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존재 자신은 그런 형체 안에서 빠르게 자유롭게 되기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과제를 불행한 과제로 느끼기 때문이다. 단지 섬기는 일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인간이 자신과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기 원하면, 인간은 단지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항상 결정을 해야만 한다. 만든 물건들이 이웃 사람을 최대한으로 섬기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형체가 분해가 되기까지 자신의 섬기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물질. 변화와 성장. 섬기는 일

B.D. No. 2789

1943년 6월 27일

 든 피조물에서 영원한 변화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돼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존재도 피조물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의 작품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변화는 걸형체의 변화를 겪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변화는 영적인 존재의 실제적인 삶이고, 어느 정도 그 안에 포함된 영적인 존재가 성장한다는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걸형체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종류와 상태로 머무는 모든 굳은 물질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적인 존재를 포함하고 있고, 이런 물질이 섬기는 일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질이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형성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인간 자신이 그의 걸형체의 변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걸형체가 남아 있고, 이 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 사람은 물질에 의해 지배당할 위험에 처하고, 이런 일은 그의 혼에게 불리한 일이다.

소위 죽은 물질로 여길 수 있는, 섬기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셀 수 없게 많다. 이런 것들은 목적 없이 이 땅의 소유물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모든 종류의 장식용 물건들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이웃 사랑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않는 동안에는, 단지 세상의 유혹하는 수단이다. 이런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감각을 자신에게 묶는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 영적 퇴보를 의미한다. 왜냐면 그가 오래 전에 극복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고, 영적인 존재에게 오랫동안 형체 안에 머무를 기회를 주면서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걸형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또한 위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1943년 6월 27일) 그런 종류의 굳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갈망하는 일은 인간의 혼에 지극히 불리한 일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물질을 이기는 대신에 물질이 인간을 패배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섬기는 목적이 없는 물건은 인간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일에는 적합하고, 이제 그의 형체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갇혀 있고, 위로 성장할 수 없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에 방해받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의지가 없을 지라도, 인간이 굳은 물질을 돌보면서 모든 변화로부터 보호하면서, 자신의 죽은 물질을 향한

사랑으로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기간을 강제로 연장하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섬기는 목적을 가진 사용돼야 할 물건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실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물건들 안에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걸형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런 물건을 사랑하는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아주 고통스러운 사슬이다. 다시 말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걸형체가 파괴된다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는 자원하여 섬기고, 외적인 속박은 인간의 그 형체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지거나 파괴된다. 이런 창조물이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면, 걸형체의 변화가 즉 모든 창조물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고, 모든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 다시 자유롭게 된다.

사람의 물질을 향한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강제의 상태를 연장시킨다.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이루려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 완고한 영적인 존재는 인류를 물질주의로 몰아가고, 인류 가운데 혼의 큰 피해를 입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는 걸형체가 그에게 주는 강요를 느끼고, 불법적으로 이런 강요를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인간의 생각에 혼동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인간의 죽은 물질을 향하는 약점을 사용하여, 서로 간에 사랑이 없게 만들고, 이웃 사람의 물질을 불법적으로 얻게 하고, 필요한 경우 폭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게 한다. 그런 일이 또한 물질을 파괴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사랑 없음으로 자신의 걸형체가 파괴되면, 무지한 영적인 존재는 자유롭게 됐다고 믿는다. 폭력적인 파괴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형체로부터 해방은 형체가 섬기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걸형체를 파괴하는 일은 그런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생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는 다시 섬기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걸형체의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걸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는 일이다.

아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B.D. No. 3300

1944년 10월 20일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타락한 존재를 도와 깊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맞게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고의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창조물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만든 것들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들이 높은 곳을 향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다시 유용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창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이나 다른 창조물들을 섬겨, 존재들이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물도 사명을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과정을 중단시키는 일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물질을 파괴하던 모든 파괴도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섬기는 기능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파괴는 이웃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파괴는 불법 행위요, 이웃에 대한 불법행위요, 진실로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로 창조한 하나님의 대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무섭게 복수한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없음과 미움의 총동으로 파괴하는 일들로 인해 사람들 자신이 당해야만 하고 또한 순전히 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또한 당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잃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잃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특별하게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찍이 자유롭게 되어 자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특히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혼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잃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혼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 혼에게 큰 해를 끼친다. 혼은 영적인 추구를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혼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될 것이다. 창조물이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희생되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창조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든 사람이 만들었든 건설적인 일을 하려는 모든 창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파괴하려는 원칙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현재 세상에서 분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을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 안에 파괴하려는 욕망을 깨어나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창조물의 목적과 의미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파괴하는 역사에 대항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더 큰 파괴의 역사는 단지 그의 사랑에 근거한 역사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섬기는 과정을 가길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끝없이 긴 감옥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은 굳은 물질이 부드러워지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제한을 가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성장할 수 있고 피조물을 성장 수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파괴의 역사를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괴하는 역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높이 성장하는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질서이다. 사람이 창조한 모든 작품이 섬기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섬기려는 의지에서 나오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보장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서이다.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 자기 사랑.

B.D. No. 6320

1955년 7월 28일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 사람은 가장 온전한 창조물의 작품으로써 사람이 이 땅에서 일어난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끝마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런 과장을 마치는 일이 거부할 수 없게 물질적인 창조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저세상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혼이 이 땅에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성장 정도에 도달하고 성장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끔찍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 과정이 실제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땅의 단지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위해 먼저 이를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단지 희귀하다. 반면에 사람들의 의지는 아주 강하게 가능한 대로 창조물을 단지 육체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활용하려고 하고 이를 통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돕는다. 왜냐면 창조물들이 의무의 단계에 있을 지라도 실제 섬기기 때문이다.

많은 물질들이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해체되고 이 물질은 항상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섬기는 과제가 주어지는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형체를 입고 영적인 존재들이 강제적으로 위로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자유의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성장을 정체시키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한다. 왜냐면 인간은 더 이상 의무단계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 항상 이웃을 섬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면, 비록 그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그가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 땅의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그가 단지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자신의 혼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을 줄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단지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는 이를 알 필요가 없다. 사랑이 실제 대부분 그가 일하도록 그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지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줄 수 있다. 왜냐면 자기 사랑을 더욱 만족시킬수록 이웃을 더 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창조물 안에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이 빠르게 중단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할 영역으로 주어진 창조물에게 불리하게 역사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사람들의 행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창조물과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잘못 된 삶의 방식과 행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 사랑이 그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영의 나라에서 전적으로 끔찍한 상태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처럼 자기 사랑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고 올바른 사랑을 향한 길과 이웃사랑을 향한 길은 끝이 없게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55년 7월 28일) 그러므로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향한 사랑을 저세상에까지 가지고 가고 이를 벗어나는 일은 아주 어렵다. 왜냐면 그가 모든 감각으로 갈망하는 것이 항상 자신의 눈 앞에 나타나서 그를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즉시 사라지고 그럴수록 이런 갈망이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혼 스스로가 자신 안의 욕망과 싸우게 되기까지 이제 혼은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런 투쟁이 항상 유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물질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그들 자신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저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이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이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섬기는 일은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질에게 섬길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람이 다시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물질에게 주어진 영적으로 정함 받은 바를 생각해야 하고 자신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 그의 모든 생각하는 일과 추구하는 일이 자신이 편안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항상 더욱 자신보다 더 낮은 성장단계로 떨어지기 위해 단지 물질적인 재물을 얻는 일로 향하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일은 자신에게 영적인 퇴보를 의미한다.

항상 성장은 진전이 돼야만 한다.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물질의 형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고 물질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러면 혼은 어려움이 없이 세상의 육신을 벗어날 수 있고 빛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비록 혼이 이 땅에서 살지 않을지라도 더 오랫동안 이 땅의 영역에 머물도록 혼은 물질에 의해 붙잡히지 않고 강요받지 않는다. 물질의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혼이 얼마나 끝 없이 감사하는지를 너희 이 땅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감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큰 원수임을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 축복이 자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이 아직 너희를 묶고 있다면, 너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너희가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너희가 섬기는 사랑을 통해 너희 자신을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때까지 물질이 너희를 묶는다.

단지 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일이 너희에게 항상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준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전의 단계에서 처럼 너희 성장을 위해 섬기도록 강요받지 않고 사랑이 너희가 섬기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싸워 이기는 사람과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지 섬기는 사랑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물질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의 이 땅의 성장 과정은 남김 없이 자신의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성공하는 가운데 끝이 난다. 혼은 이제 영의 나라에서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일할 수 있고 이런 섬기는 사랑으로 아직 자유가 없고 빛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들의 사슬로부터 마침내 자유롭게 될 수 있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혼들을 돕는다.

사람은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게 도와야 한다.

B.D. No. 7988

1961년 9월 9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선한 축복이 충만한 역사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이든지 동물이든지 또는 식물의 세계의 것이든지 모든 것을 너희의 사랑으로 감싸면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영접하라.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의무의 법칙 아래서 높은 곳을 추구하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라.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제를 성취하게 그들을 도우라. 너희는 영적인 존재들이 너희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저항을 줄이고 자원해 섬기면서 이에 반응함을 믿으라.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단지 영적인 존재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 너희의 의지로 굳은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그들에게 정해진 바를 성취할 수 있게 하면, 그들의 시간은 짧아져서 그 안의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는 더 빠르게 그의 물질적인 걸형체가 분해되어 자유롭게 되고 다시 새롭게 형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항상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너희는 이 존재들을 충만한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항상 너희 스스로 이런 모든 창조물을 통해 체험하는 그들의 섬기는 일을 인정하고 모든 도움에 감사해야 한다. 너희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은 그에게 정해진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왜냐면 비록 너희가 목적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목적과 의미를 갖지 않은 창조물은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성품이 사랑을 발산하면, 너희 주변의 영적인 존재들은 이 비추임을 느낀다. 그러나 너희를 섬기기 위해 자주 너희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물질을 쌓아 두면, 너희가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두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정해진 바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부를 축적하면, 이로써 너희가 이런 창조물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방해함으로 그들의 성장을 연장시키면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스스로 아직도 물질에 매우 묶여져 있는 것이고 낮은 빛의 정도에 있다는 증거이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물을 모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연장시킨다. 왜냐면 물질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형태 안에서 살기 위해 그들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너희의 생각은 올바를 것이다. 너희는 베풀어 줄 것이고 쌓아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 주변에 모든 것이 섬기게 만들고 올바른 축복을 발산할 것이다. 너희가 물질을 분해해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키면서 너희 스스로 너희 손으로 만들어 내면, 너희가 창조적으로 일하면, 너희 스스로 묶임을 받은 존재들이 분해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다시 너희를 섬기는 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곁형체가 바뀌지는 모든 일은 높은 곳을 향하는 성장이다. 그러나 항상 선한 동기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와 물질의 형체를 변형시키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가 만드는 모든 것에 섬기는 역할을 부여해야만 한다.

비록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생명체로써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기까지 성장 정도에 도달하여 마지막에 가서는 자유의지로 섬길 수 있게 되는데 필요한 성장 과정에 아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너희에게 이런 것이 긴급하게 필요 할수록 그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더 빠르게 높은 곳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하게 자극할 것이다. 사랑은 항상 단지 아직 묶임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아주 선한 것을 발산할 것이다. 사람 스스로 헤아려 볼 수 없을지라도 또는 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사랑은 항상 구속하는 역사를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의지로 사랑 안에서 섬겨야 한다. 너희들 주변의 영적인 존재도 너희를 섬길 것이다. 왜냐면 그의 저항이 줄어들고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

B.D. No. 5161

1951년 6월 30일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능력을 너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그들이 어떤 상장 정도에 있다고 여기든지 상관없이,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그들 모두가 아직 힘을 필요로 하고, 모든 도움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혼들을 깊은 곳을 벗어나게 도왔다는 사실이 행복을 의식하게 한다. 만약에 너희 자신이 저 세상에 도달하여, 많은 혼들이 중보기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이 땅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비로소 이를 제대로 깨달을 것이다.

혼들이 단지 한번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이 능력을 활용하면, 혼들은 거대한 열심으로 역사한다. 그러나 먼저 사람편에서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을 자극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중보기도가 가장 빠르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보기도는 의식적으로 드러야만 한다. 즉 혼들이 그들의 성장을 하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중보기도해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중보기도가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제 죽은 혼들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심장으로 이런 혼들에게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혼들은 이런 능력의 공급을 확실하게 체험할 것이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고, 모든 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빛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주변을 비추는 같은 사랑을 행하게 된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위험과 고통을 줄여 주려는 의지가 있으면, 너희는 말할 수 없게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의지가 너희가 유일하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심장으로 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외적인 형식이나 또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왜냐면 외적인 형식이나 또는 입술의 기도는 의식적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구원한다. 이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해줘야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빛나는 빛을 어둠에 전해, 그 곳에 많은 혼들이 모이게 하고, 빛의 비추임을 통해 감동받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들 안의 사랑의 느낌이 깨어나고, 항상 그들 자신이 일하기 원하게 만드는 성공을 한다.

사랑의 중보기도는 그의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거대한 힘의 흐름이다. 이런 중보기도에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생각으로 그들을 너희에게 부르고, 너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조용하게 저항하지 않고 너희 도움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해 전하는 능력을 활용하기 원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생각을 통해 가르치라. 그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라. 단지 한 분이 그들을 구속할 수 있고, 단지 사랑을 통해서만 이런 한 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힘으로 마찬가지로 다시 큰 위험 속에 있는 혼들을 도와야 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그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공홀로 모두를 이끌어, 빛의 나라로 인도한다.

너희가 한 혼을 도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게 하면, 그의 성장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의지의 연약함과 무능력이 사라지고, 혼은 열심히 높은 곳을 추구하고, 자신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높은 곳으로 이끈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런 혼들에게 전하고, 이로써 단 하나의 올바른 중보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중보기도가 실제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위해 사랑하는 심장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왜냐면 그들 모두가 아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아직 연약한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B.D. No. 6582

1956년 6월 28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지 못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묶여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 땅에서 영의 밤 가운데 사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들의 이 땅의 길을 가고 그들은 영이 눈이 멀었고 이런 대적자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혼은 가장 굳은 껍질체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빛줄기도 관통해서 혼에게 빛을 비출 수 없다. 혼은 육체 안에서 성숙하게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입었다. 그러나 혼이 육체를 입은 초기에는 항상 육체에 굴복했고 육체는 대적자가 환영하는 혼이 성숙하게 되는 일을 막는 도구였다. 인간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은 이제 자신의 몸 안에서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 왜냐면 육체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혼을 더 굳게 감싸고 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이 빛을 향해 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단지 자신의 몸 안에서 살고 이로써 사람 편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그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혼이 육체를 장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 이미 구원받은 이웃이 이런 해방시키는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해방시키는 일은 단지 그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해주는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혼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로써 사람 스스로가 변화되고 예수를 향한 길을 가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진실로 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전적으로 사탄의 권세 안에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대적할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가 자기 사랑을 키우는 법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그

가 가장 적게라도 자신의 혼을 돕지 않고 곁형체를 분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사랑이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웃이 이제 긍휼히 여기고 이런 혼을 위해 일해야만 하고 그의 몸이 혼에게 주지 않은 사랑을 혼에게 줘야 한다. 혼은 단지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생각을 행복하게 느끼고 그는 이런 행복을 빛의 불씨처럼 느끼고 힘을 얻는 것으로 느끼고 이 가운데 선한 의미로 육체의 곁형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성공한다.

혼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면, 모든 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너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 심장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너희 모두가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사랑이 그런 혼들의 죄짐을 넘겨받고 죄짐에 대한 속죄를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그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바꾸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혼은 사람 안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이다. 혼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힘을 공급 받으면, 혼은 사람이 내면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원하도록 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의 사랑의 불씨가 어두움을 뚫고 혼은 자신의 잘못 된 의지의 방향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웃이 그에게 사랑이 더 많이 줄수록 변화되는 일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머물지 않을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된다. 사랑으로 충만한 생각이 뒤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도의 대상에 포함 된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연약하고 어두움에 빠진 혼에 대한 사랑이 혼에게 빛과 힘을 주려는 원동력이라면 긴밀한 기도를 통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일도 성취시킬 수 있다. 이웃의 사랑이 단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다면, 어느 누구도 멸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아멘

긍휼로 드리는 중보 기도.

B.D. No. 7132

1958년 5월 27일

**너**희에게 해를 입힌 이웃에게 긍휼을 거절하는 너희는 나에게 같은 긍휼을 요구하지 말라. 왜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내 긍휼에 의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 그들의 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엄격한 판결보다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똑같이 행해야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의 공격을 받음을 너희에게 강조해줘야만 한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실제 나를 부름으로 내 대적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나는 실제 내 대적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보호와 도움을 청하면,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한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주 그를 깨달을 수 없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의 그물에 걸린다.

이는 실제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다. 왜냐면 그들이 어두운 영으로 있고 자신 안에 작은 빛을 밝히기 위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실패로 인해 한때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어두움을 저세상으로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빛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단지 그들의 비참하게 여길 만한 상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런 혼들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행해야 한다. 너희 이웃의 연약함이 너희 안에서 뜨거운 긍휼을 일으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혼을 그들을 돕기 위해 어쩔 줄 몰라야 한다. 이 일은 중보하는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혼들을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사랑의 힘을 전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너희는 이런 혼들을 얻기 위해 내 대적자와 싸워야만 한다. 사랑이 이런 혼들을 돕기 원하게 너희에게 역사하면, 너희는 내 대적자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너희 안의 사랑이 내 대적자의 포로가 된 이런 불행한 혼들을 돕기 위해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너희는 혼들이 언젠가 비로소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혼들이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혼에게 저항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두운 저세상으로 가게 되면, 내 대적자가 혼들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해주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 한 사람의 사랑이 이런 혼들이 내 대적자를 떠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아직 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아직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이미 그가 저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운명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길을 잃은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라.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의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혼들을 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나는 모든 긍휼히 여기는 부름을 듣는다. 너희의 사랑 때문에 나는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혼이 혼자 있게 하면, 혼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항상 사탄의 그물에 깊게 걸려들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이 전적으로 영의 눈이 멀었고 이 땅의 길에서 혼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바로 의지의 연약함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이런 의지의 연약함이 단지 사랑의 중보 기도가 혼에게 항상 줄 능력의 제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 좋은 설교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중보 기도가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혼들을 너희 모두의 심장에 맡겨서 너희가 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혼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한다.

왜냐면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단지 사랑하는 생각을 통해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를 항상 가장 큰 원수로 보아라.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혼들을 도우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이 혼들이 영원히 너희에게 감사하게 될 사랑의 역사를 완성한 것이다.

저세상의 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

B.D. No. 7438

1959년 10월 27일

**저** 세상에서 어떤 중보 기도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혼들이 한 걸음 성장하는 일은 유일하게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불쌍한 혼들은 대부분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없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변장하고 방문하는 빛의 존재들이 주는 모든 소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원하려는 능력이 없고 한 편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무관심하게 근근이 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단지 사람편에서 하는 중보 기도만이 이를 수 있다. 모든 일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야만 한다. 혼에게 능력이 제공이 되거나 또는 다른 도움이 주어지면, 혼이 이런 도움을 갈망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도움을 주기에 합당하지 않은 혼에게 하나님은 임의대로 능력을 제공할 수 없다.

혼들이 스스로 단지 어떤 것을 시도하기에 혼들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시키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은 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하며 기억해야 하고 이런 불쌍한 혼들을 위해 자주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이런 혼들에게 선물해주고 전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전할 것이다.

이로써 어떠한 중보 기도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머물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사람이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영접하는 혼은 멸망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혼은 언젠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일을 착수해야만 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혼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활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혼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다.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혼들을 돕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왜냐면 혼 자신이 중보 기도를 통해 사랑의 힘을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들은 말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한다. 혼들이 언젠가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들에게 알려진 올바른 길을 가면, 그들은 아주 감사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감사함에 구속하는 일을 행하면서 응답할 것이다. 왜냐면 자신들의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자신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돕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중보 기도자가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사랑의 중보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어둠 가운데 거한다. 너희는 이러 모든 혼들을 위해 기도하라. 단지 그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가져라. 이런 선한 의지가 그들에게 능력을 제공해줄 것이고 그들이 한 동안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재촉받는 것으로 느끼고 그들이 따르게 자극하는 빛의 불씨가 이제 한 동안 비친다.

너희가 이런 어두운 영역으로 보내는 공허히 여기는 생각은 항상 존재들이 서로 간에 그들의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서로 가르치게 만드는 작은 소원을 일으킨다. 중보 기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혼들의 소원은 더 강해진다. 그러면 깊은 곳을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작은 빛을 제공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혼들을 돕는 일은 아주 큰 공훈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혼들 스스로 자신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외부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세상에서 혼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도움을 혼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를 갖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 사람들이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공이 먼저 필요하다.

이 일은 너희가 혼들의 죽음 후에도 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사랑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역사는 혼에게 어두움을 벗어나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혼들이 한 번 빛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 구원받으면, 이런 혼들은 마찬가지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다른 혼들을 열심히 돕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당한 위험을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너희 곁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B.D. No. 6070

1954년 10월 5일

너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심장이 갈망하는 것을 이제 진지하게 점검하라. 너희의 감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맘몬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이는 공허한 말이다.

왜냐면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곁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게 된다. 너희는 유일하게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릴 것이고 이제 또한 내 사랑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의 가장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사랑이 향하게 돼야 할 가장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신인 너희 사람들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이 너희에게 갈망할 만한 동안에는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맘몬을 갈망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다른 신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왜냐면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는 너희의 모든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랑을 너희가 진실로 추구하는 자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곁에 다른 어떤 이방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내 계명이고 너희 사람들이 너희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내 계명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에게 나 외에 이방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심장으로 세상의 재물을 연연해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나를 향한 갈망이 너희의 온 심장을 채우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다. 내가 유일하게 선하고 진실되고 사랑할만하다. 내 곁에 이방 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믿는다면 그는 나를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유일하게 섬기기 위해 심장에서 모든 것을 추방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너희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지를 진지하게 점검하라.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주는 대상이 또한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또는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 너희를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는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한다.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주인을 인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이로써 선한 모든 것과 싸우는 자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결정적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린다면,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제공한다.

이로써 하나님이 한때 존재가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부과한 파문이 끝나게 된다. 존재가 섬기기 원한다면, 존재는 자유롭게 되고, 비록 그가 이 땅에 거하는 한 계속 투쟁해야 하지만, 그는 이 땅의 삶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의 투쟁은 절망적인 투쟁이 아니고, 그가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완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섬기려는 의지가 구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면, 그가 이웃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서기는 일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파문을 받게 한 자의 권세에서 이웃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일이다. 자유롭게 못하고, 무임을 받은 모든 존재는 아직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가 변화되어야 한다. 존재는 자주 이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존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하고 힘과 은혜를 구하게 하면서 그를 도와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사랑으로 이웃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는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려는 의지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벌 수 있는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의 힘이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그에게 이 힘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하기 위해 힘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힘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주 깊이 낮추는 사람은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의 흐름이 그가 자신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적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될 것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나눠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를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고, 그를 지혜롭게 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빛을 준다. 빛은 어두움을 지배한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한 때 가졌던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영원할 영적인 재물을 그에게 줄 수 있다.

아멘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는 일이 올바른 예배이다. 그러나 또한 올바른 예배를 단지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는 일로 이해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을 섬기면, 그는 동시에 창조주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사람에게 접근할 길을 열면, 영의 세계는 끊임없이 일할 수 있다. 영의 세계는 이제 또한 사랑으로 다시 일하다. 다시 말해 영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고, 영의 세계가 나눠 주기 원하는 것을 다시 받는다. 왜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저세상의 첫 번째 계명이고, 그러나 또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사람 안에 내적인 만족의 행복과 참된 기쁨을 촉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은 참된 예배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말을 이와 다르게 이해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때, 자신이 사랑 안에 살고, 이로써 자신의 기원을 확인하고,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왔음을 깨닫고, 이제 또한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그가 행할 때, 그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 자신인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피조물에게 발산되고, 이로써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일은 곁형체인 육체의 삶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삶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영적 삶은, 사람 안에서 사랑이 활성화될 때, 깨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랑이 향하는 존재가 사랑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응답하는 사랑을 깨우고, 심장이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사람 안에 증거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 다시 자신의 창조주에게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이런 일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합이 된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들이 원래부터 받은 사명이다.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어떤 존재도 버리지 않고, 이런 존재를 자신에게 인도하려고 항상 또 다시 시도한다.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접근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존재가 원래부터 받은 사명이다. 왜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행복하게 하고 동시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통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힘을 전달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가 받아, 빛에 굶주린 영적인 존재에게 전해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발산은 사랑이고, 존재가 이제 이런 발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존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이런 발산이 존재에 의해 영접을 받으면, 이런 일은 존재가 다시 사랑을 행하는 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랑의 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 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에 기여한다. 한 사람이 이제 사랑으로 이웃 사람을 섬기면,



그는 영원한 창조주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러므로 소멸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각각의 피조물에게 속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려고 시도한다. 이로써 그들이 자신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웃사람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면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가르쳐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는 영원한 사랑 자체와 접촉하고, 그러므로 그는 저세상의 존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일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되는 공휴의 역사이다. 그는 또한 존재들의 하는 일을 쉽게 해주면서, 존재들을 또한 섬긴다.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과 빛의 존재를 연결시키면, 그들의 역사에 제한이 없게 된다. 인간은 이제 사랑으로 섬겼고, 이를 통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봄이 언제든지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단지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기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아멘

올바른 예배는 자선과 공휴이다.

B.D. No. 3797

1946년 6월 11일

**너**희가 자선을 베풀고 공휴히 여긴다면, 너희는 가장 분명하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행한다면, 너희가 사랑 자체인 나에게 속한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돕고, 고난을 줄여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은사가 필요한 곳에서 은사를 줘야 하고,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영적인 격려를 통해 육체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그들의 혼을 도와야 하고,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고,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곳을 도와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비참함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랑이 깨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 영적인 비참함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모든 영적인, 세상적인 비참함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예배이다. 너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를 섬기고, 너희가 가장 작은 형제들 중 한 명에게 주는 모든 도움으로 나를 섬기는 너희를 기뻐하며 나의 눈이 바라볼 것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너희가 이웃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나의 뜻에 맞는 너희의 섬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는 세상적 또는 영적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단지 말이나 외적인 형식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을 드러라. 나의 임재를 보장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나의 가까이에 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적인 영적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왜냐면 너희를 통해 역사하는 이가 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를 너희에게 이끌고, 내가 이제 눈에 띄게 너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항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 주변의 고난이 긴급하게 너희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길을 가고, 너희는 진정한 기독교 적인 삶을 살고,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고, 너희는 또한 내가 약속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한다.

아멘

올바른 예배.

B.D. No. 5249

1951년 11월 4일

**나**를 향한 참된 헌신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동인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를 기쁘게 한다. 나는 내 자녀들의 심장 안의 성전을 본다. 그들은 이 성전을 나를 위해 기록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은 단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과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성전을 열고 나에게 입장을 허락하고 나와 단둘의 대화를 위해 침묵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들이 이제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이 그들에게 조언하는 모든 일을 행하면, 그들은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단지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내 말씀을 듣고, 온 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내면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충동을 느끼고, 내 영에 의해 인도를 받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충실한 증으로서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내 의지는 항상 사랑을 행하는 일이고 진정한 겸손과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행하는 일이고, 이웃 사람들을 돕고, 나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다. 나를 섬기는 일은 절대로 요구할 수 없는 자유의지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너희가 이미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발적으로 나에게 드러진 시간과 힘의 희생제사와 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고, 내 나라 밖에 머물고 영적인 위험에 처한 혼들을 내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나를 위해 일하려는 자세와 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진실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그의 섬김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지 자신이 참석한 것을 증명하기 원하고, 단지 형식에 만족하거나 또는 인간이 내린 계명을 지키는 일로 만족하는 사람은 진실로 그로 인해 적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의 섬기려는 의지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단

지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그런 후에는 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과 같기 때문이다. 나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항상 따르려고 내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온 심장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하고, 이 사랑에서 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한 그의 섬김을 축복하고, 그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올바른 예배.

B.D. No. 8507

1963년 5월 24일

**만**약에 너희가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허용하고 내가 너희 모든 생각을 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자원해 설명하기 원함을 믿으면, 나는 너희에게 너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내 뜻은 너희의 사랑 행함과 기도를 통해 항상 나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의 생각이 자주 영적인 영역에 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연결이 너희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와 너희의 생각을 인도할 권한을 나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그러면 항상 사랑을 하게 자극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의 긴밀한 연합이 너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의 흐름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을 행하며 섬기는데 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단지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을 통해 구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의무 단계에서 육신을 입고 위로 성장했던 것은 내 의지를 따라 수행해야만 하는 바로 섬기는 역할이었다.

너희는 모든 형태 안에서 섬겨야만 했다. 너희는 이를 통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했다. 너희가 이제 의무 단계에서 벗어난 이런 상태에서 너희는 전적으로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사랑 안에서 자유의지로 섬겨야 한다. 너희는 한때 타락했다. 너희의 죄는 너희가 교만한 가운데 지배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인간으로써 너희는 이제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던 원초의 너희의 상태로 다시 변화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사랑 안에서 섬겨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너희의 인생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너희가 성취하게 항상 자극을 받아야 한다. 전적으로 이런 형식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깊은 의미를 잃게 되면, 전적으로 가치가 없게 될 수 있는 정해진 형식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소위 예배를 통해 이런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일을 대체시킬 수 없다.

순전히 입으로만 하는 기도로 볼 수 있는 입술이 배운 말을 사용하고 심장이 참여하지 않는 기도나 또는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행동들도 나는 여기에 속한 것으로 여긴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곳을 찾아 가면 실제로 좋은 일이고 혼의 구원에 유익한 일이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 이름 아래 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름 아래 모이고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내 임재가 보장이 되는 곳에서 생명력이 있게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과 영적인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 좋

은 일인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내 말을 듣기 위하면, 그의 소원에 따라 그의 혼을 위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들이 진지하게 나를 섬기려고 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관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전혀 유익이 없는 모든 형식과는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항상 단지 너희와 나 사이에 생명력 있는 연결을 원함을 즉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조용한 골방에서 다시 말해 세상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는 내 말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면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되는 것은 큰 공동체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너희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보내 주는 일꾼을 통해 너희는 위로부터 온 내 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모든 사람의 심장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받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이 너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내 말이 너희 심장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가운데 습관들을 또는 길들여진 관점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관찰해 본다면 너희는 이 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진지하게 너희 혼의 성숙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너희는 단지 형식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이를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함을 너희가 그에게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함을 통해 표현되는 너희의 그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 함을 이해할 것이다. 계속하여 섬기는 것은 너의 혼이 확실하게 성장하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깨달음의 빛이 항상 밝게 비추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의 사랑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전에는 너희가 질문했던 것들이 전적으로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얻을 것이다. 너희 안에 어떤 의심도 잠잠해질 것이다.

아멘

간헐적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

B.D. No. 6649

1956년 9월 20일

**내**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찾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비록 그들 자신이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교회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단지 소수의 사람이 내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갈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실제 내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멈췄다.

세상 일과 육체적 안녕을 우선에 두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너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생각하고 너희의 실제적인 삶의 목적을 기억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를 점검해본다면, 너희 사람들은 그들이 내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게 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 대부분은 단지 전통적으로 정해진 짧은 아침 기도와 정오의 기도와 저녁 기도 또는 공식 예배 시간을 나를 위해 쓴다. 그러나 전적인 자유의지로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은 단지 희귀하게 일어나고 너희 자신이 동인이 되어 나와 대화를 유지하는 일은 단지 희귀하게 일어난다. 너희가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려는 갈망을 단지 희귀하게 갖는다. 그러면 너희의 생각은 항상 세상 걱정과 세상 계획과 세상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너희의 창조주요 유지하는 존재로 믿을지라도 내가 너희 생각의 중심적인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사랑으로 너희에게 향하는 내 안의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내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단지 희귀하게 택하여 자녀들처럼 아버지에게 말하고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게 하고 동시에 나와 긴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의 삶을 산다.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훨씬 더 자주 나에게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대화는 일상 생활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일상 생활에서 거의 나를 언급하지 않았고 나를 언급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미소를 지을 뿐 그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실제 이런 형편에 있고 나 자신이 단지 희귀하게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일은 더 적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희귀하게 실제적인 내면의 필요로 인해 한 시간을 나에게 드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항상 그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단지 몇 시간의 기독교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예배와 의식에 참석하는 일이 자원하여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내적인 충동에 의한 단지 생명력 있는 연결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내 말씀을 듣고 혼에 영양을 공급하려는 갈망은 나를 향한 갈망으로 평가 되고 성

취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 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가 양육을 받는 전통적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키고 그가 단지 전통을 따라 충족시키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심장을 들여다보고 아무도 나를 속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심장을 요구하고 내가 두번째나 세번째 위치에 차지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의 요구 사항을 가장 첫 번째 위치에 두는 동안에는 너희는 죽은 기독교인에 속한다.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는 다르다.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역사한다. 사랑을 통해 내가 임재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항상 나를 생각한다. 그는 나를 세상의 모든 것 앞에 두고 이전에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람들은 단지 소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직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인 결정해야 할 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힘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하고 힘을 받기 위해 나와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때가 올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라. 그러나 너희가 내 심장으로 가는 길을 찾고 찾아야만 하기 위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단지 유일하게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게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켜야만 한다.

아멘

올바른 기독교.

B.D. No. 6834

1957년 5월 19일

**종**은 기독교인은 단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의미는 그 **종**가 사랑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인내하며 짊어지고 내 뜻에 복종하며 산다는 의미이다. 단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로 충분하지 않고 그의 구속사역을 깊게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그가 예수가 이 땅에서 설교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삶을 통해 비로소 올바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속할 수 있는 외적인 교회를 통해서는 증명이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파되려면, 사람들이 교회나 종교적인 단체에 속하는 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있는 내 교회의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영접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주는 지식과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가르침대로 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면 겉보기 크리스천은 영과 진리를 세우는 내 교회에 속한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언젠가 진지하게 영원한 진리 자체인 내가 절대로 겉보기의 기독교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고 너희는 모든 진지함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수 있게 노

력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야 한다. 너희는 인간 예수를 모범으로 삼고 그의 사례를 따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 말이 의미는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 일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너희에게 올바른 삶을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온유하고 인내하고 평화를 전하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의롭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해 작업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고 그는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노력을 돕고 그는 이 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는 이제 예수의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한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길을 가고 그러므로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신을 그에게 속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실로 신적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처럼 단지 말만 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이 땅의 모든 곳으로 전파될 것이고 심장 안에 올바른 사랑이 불타오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할 것이다. 내 영의 그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복음은 모든 곳으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심장에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전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비로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가 교회의 조직의 속했거나 또는 속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그는 어두운 이방인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일을 행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기독교는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이고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도달하려는 진지함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올바른 크리스천임을 증명해야 할 이 땅의 마지막 싸움은 내 대적자에게 쉬운 싸움이 된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

B.D. No. 7779

1960년 12월 22일

**너**희가 외적으로 크리스천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 조직에 속한 것으로 교회 조직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형식과 습관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든 교회 단체가 대변하고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하는 일만이 필요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분 자신이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만이 필요하다.

스스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산 분이 자신의 교회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본원칙으로 삼게 했다. 왜냐면 그의 교회는 죽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교회는 영이고 생명이다. 그의 교회는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사랑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왜냐면 사랑과 믿음이 그의 교회의 올바른 상징인 영이 역사하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상징을 제시할 수 없으면, 너희는 단지 너희가 속하게 된 단체의 눈먼 추종자들이다. 너희는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할 너희 혼이 위로부터 오는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고 너희는 멸망받을 위험 속에 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의 결과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비로소 영원한 힘의 원천과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천으로부터 능력을 제공받는 일이 필요하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아주 쉽게 여긴다.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편에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면, 충분히 한 것으로 믿는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대리자인지 또는 단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 한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생각할 것이 없이 너희에게 진리로 전해지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 근원을 점검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한 진리 자신에게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를 부탁하기 위해 그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너희는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했으면, 너희는 진실로 진리 안에서 인도받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해진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닌 행동이나 규칙을 따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따른 것으로 너희는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 도달했을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랑만이 너희에게 그의 교회의 속했다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너희에게 준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바위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그의 교회의 올바른 일원이 되면, 비로소 너희를 크리스천이라고 칭하라.

이런 크리스천이 되는 일에 모든 교회의 조직에 속한 너희가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교회 조직이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매를 주지 않는 너희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계명을 우선에 두지 말라. 왜냐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진지하게 여기면, 너희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교회의 형식적인 요구를 성취하면, 너희 혼은 영원히 같은 단계에 머물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성장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 성장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통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은 최종적인 깨달음에도



달하게 하고 영이 깨어나게 한다. 이로써 사람이 더 이상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확실하게 도달하게 될 완성을 진지하게 추구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회.

B.D. No. 8651

1963년 10월 21일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 믿음은 사랑에 의해 생명력 있게 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마찬가지로 단지 사랑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안의 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 항상 단지 자신을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킨 사람을 내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게 만들 수 없는 이 때문에 내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위와 같이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베드로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혼이 뒤로 물러서라는 재촉을 받았고 버려진 느낌을 받았던 반면에 큰 위험 가운데 탈출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주로 그의 이성이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험 이후에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항상 깊어 졌고 그의 믿음은 굳건하게 되었다. 이런 믿음을 나는 내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원수인 내 대적자에게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깨닫고 모든 오류로부터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의해 세워진 교회 일원이라는 증거로 그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불투명한 것이 없고 의심이 없고 혼동을 일으키는 개념들이 없다. 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빛이 될 것이고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외적인 특징을 가질 필요 없다. 교회는 조직을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조직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자신 안의 영을 깨우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사랑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 영적인 연결이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이다. 너희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해야 함을 항상 의식해야 하고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항상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헌신해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너희를 양육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쳐 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희 혼의 성장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 의해 세워진 내 교회의 일원으로써 너희는 항상 내 올바른 제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에 복종하며 견디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합격해야 하는 너희의 혼의 성장을 높이기 위한 돕는 수단인 믿음의 시험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삶과 함께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연결이 되어 사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이 너희에게 너희들 완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가 단지 나와 생명력이 있게 연결되었으면, 이를 통해 진리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고 게다가 항상 사랑의 삶을 살고 이를 통해 굳건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가 어떤 종파에 속했던 간에 이런 완성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너희에게 부족할 때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의 단지 죽은 형체에 불과한다. 왜냐면 너희가 외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는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인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속하여라. 너희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너희 안에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너희는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지옥이 흔들리게 할 수 없는 믿음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내 임재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나로부터 타락하기 전에 소유했던 능력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래 초기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온전할 것이다. 너희의 삶은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사명. 진리를 전하는 일.

B.D. No. 2831

1943년 7월 30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그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아주 어려운 사명이다. 이런 사명은 최고의 인내와 최고의 사랑과 끈기가 필요한 사명이다. 그러므로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일에 자신을 드리는 동안에는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세력들의 부족은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은 또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자신의 혼을 위해 모두 사용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지 않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 땅의 인간의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게 해주는 순수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지 않고, 아무런 지식이 없이 머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대항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과 인내로 자신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자신에게 제시된 진리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는 그 자체가 말하고,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을 지니고 있다. 만일 그들에게 이전에 오류가 제공되어, 그들의 관점이 흐려지고, 그들의 의지가 약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오류를 물리쳐야만 한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자신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오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들은 바로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대부분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영접을 받기 보다 더 많은 거절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 인해 낙담해서는 안 된다.

오류에 빠진 혼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이 항상 계속하여 돌보고 진리로 가르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의 일꾼과 동시에 주님의 영적인 일꾼들이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 안에 개입하기 시도하고, 동시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대화를 통한 이 땅의 모든 지원을 저세상에서 가르치는 존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왜냐면 이런 대화가 가르치는 존재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이 땅의 사람들의 자원하는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런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로써 가장 어두운 영적인 밤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땅에서 하는 노력이 거의 성공하지 못

할지라도, 이런 노력이 자주 저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높이 성장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 사랑으로 사람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진리는, 사람이 단지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힘으로 역사한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람이 생각으로 진리에 대한 입장을 취하면, 이 힘이 지속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인류 사이에 오류가 크고,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은 자신이 진리를 제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거절이나, 조롱이나 또는 불만으로 인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의 열심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혼들이 언젠가 그의 사랑이 자신들을 돌보아 준 것에 대해 혼들이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빛이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선 모든 존재가 오류에 빠진 혼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일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 혼들이 끊임없이 저항할지라도, 빛의 존재들은 오류에 빠진 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부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 이 땅의 직분.

B.D. No. 3601

1945년 11월 13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만 하도록, 자신이 부름 받은 것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써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없다. 이 조건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꾼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듣기 위한 조건을 먼저 성취시켜야만 한다.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는 깊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자신 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런 선행 조건들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계시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의 뜻을 이웃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웃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선한 의지로 그들에게 영적인 일에 관해 말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가 진리 된 가르침을 전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굳은 의지로, 아주 중요한, 그러므로 단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실행할 수 있는, 이 땅의 직분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성취시킬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 안에서 영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그는 분명하게 진리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얻어, 자신의 특별한 사명에 대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만 한다. 그는 섬기는 종으로 자신이 자신의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가 단지 전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이웃 사람들을 도우려는 강한 의지의 결과 이어야만 하고, 어떤 세상의 유

익이 함께해서는 안되고, 세상적인 유익은 전적으로 제거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원하면, 그는 전적으로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통해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대로 일할 돕는 사람들을 부른다. 왜냐면 이제 첫번째로 부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 안에 머물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통해 순수하고, 변색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영접받을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종을 통해, 그에게 전해진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유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받는 사람을 선생님이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써 이 땅에서 일할 수 없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이웃 사람들의 지도자나 선생이 될 수 없고, 이웃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함이 필요하고, 올바른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전달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직접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할 능력을 갖는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비로소 순수한 진리를 대변하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이루고, 스스로 자기 안의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길을 통해서서는 절대로 진리에,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자신이 진리로 인도받지 못한 동안에는, 그는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전달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단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세상으로 파송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진리는 영원으로부터 진리 자신인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일하라는 부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사명.

B.D. No. 4174

1947년 11월 24일

**너** 희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부름을 받을지는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각각의 종들의 성장 정도에 달려 있다. 왜냐면 나에게 나의 포도원 일을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의 혼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 그의 능력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배정받을 것이다. 사람 자신이 내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라는, 나를 위해 일하라는, 이웃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는, 자극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면의 자극을 통해 그들을 부른다. 나는 어느 정도 그의 감정 안에 그의 사명을 넣어 준다. 그는 이런 감정에 대응할 것이고, 내적인 자극을 따를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내면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는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인도받는 생각을 할 것이고, 자신이 받은 것을 말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가 사람을 만나게 하여, 그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고, 그와 영적인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이웃 사람이 생각하게 자극해주어, 그들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들의 특별하게 높은 성장정도가 그들에게 허용하는 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들에게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알려 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 안의 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나의 대적자가 분명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나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할지라도, 순수한 진리를 영접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할 것이다. (1947년 11월 24일) 이러한 사명을 위해 특별한 능력이, 말을 잘하는 은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나를 위해 역사하는 때에, 그가 나의 영을 통한 역사를 허용하는 특정한 성장 정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은사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가 말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어야만 하고, 나의 말씀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모든 공격을 반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 비록 그가 단지 나의 말씀을, 나로부터 나온 순수한 진리를, 전파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유롭게 말해야만 한다. 왜냐면 말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활발한 이성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가 자신이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나의 일꾼의 영적인 우월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유일하게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은, 깨어난 사람들 만이, 나 자신을 선생님으로 모신 사람들 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크고, 깊은 문제로 논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서고, 자신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일꾼에게 특별한 부름이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 자신이 나의 뜻을 안다는 전적인 확신을 갖을 것이고, 이제 전적으로 모두 자신을 나의 뜻에 순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와 나의 가르침을 위해, 그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단지 나 자신으로부터 너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 가르치는 사람을 얻으면, 이는 큰 영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을 진리를 위해 드리고, 더 큰 영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정함을 받은 사람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나 대신에 말할 것이고, 단지 나의 뜻만을 행할 것이고, 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발걸음을 나와 함께 갈 것이고, 단지 나를 위해 말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 자신이 사람들의 믿음과 의지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를 알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나에게 순종하는 일꾼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왜냐면 나의 순수한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나의 능력으로 축복

을 받은, 그러나 인류를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로부터 직접 나와, 이 땅에 전해진, 나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범적인 사랑의 삶.

B.D. No. 4092

1947년 7월 27일

**아**주 사랑이 없는 시대에 모범적인 사랑의 삶을 통해, 아주 특별히 사람들에게 역사해야만 한다. 이로써 이웃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깨닫게 되고,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한 부탁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대로 행할, 모범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그 안에 사랑하려는 의지를 일깨우고, 능력껏 행해야 한다. 좋은 사례는 단지 입으로만 가르치는 말보다 더한 축복을 가져오고, 좋은 사례는 자주 강박한 심장을 얻는다.

자발적으로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너희는 사랑의 삶의 영향력을 안다. 너희는 힘과 빛을 받는 사람이 됐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영적인 선물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 땅의 재물을 나누고, 일상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나의 나라를 위한 너희 사역에 중요하다. 너희가 이렇게 나누는 곳에서, 영적인 선물에 대해 열린 마음을 발견하고, 보답하려는 사랑을 일깨운다.

단지 이런 방식으로 극도의 사랑 없음을 제어할 수 있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분명하게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삶이 이웃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모방하게 한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머물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역사 안에서 나의 능력의 발산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서, 나 자신이 역사한다. 내가 역사하는 곳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수 없다.

가장 적게라도 보답하는 사랑을 일깨우면, 이미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충분하지 않을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를 통해 사람이 나와 연결되고,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대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사랑이다. 그는 사랑을 견딜 수 없다. 계속되는 사랑의 삶은 그를 완전히 몰아낸다. 이로써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랑 없는 삶을 그만두고, 작은 사랑의 섬김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자신이 이제껏 속했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감지한다. 그가 사랑의 길을 주의하고, 계속 갈 때, 그는 더욱 자유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끌림을 느낀다. 그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자신의 시작과 목적지에 관한 지식이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낌을 주지 못하나, 사랑의 삶은 지금까지 그에게 숨겨져 있던 것을 예감한다. 그러므로 이웃사람 안에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로써 그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느낌을 감지하고, 이를 더 높이려고 한다. 스스로 하지 않을 사람에게 누군가가 좋은 본을 통해, 그

를 이끌어야 한다. 그의 심장이 아직 아주 굳어지지 않았다면, 그에게 행해진 사랑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피할 수없이 영원히 잃어버렸을 한 혼을 나의 나라를 위해 더 얻게 된다.

아멘

포도원 일꾼의 이웃을 향한 섬김.

B.D. No. 7990

1961년 9월 14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희의 과제로 주어졌다. 너희는 너희의 과제에 도움이 되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는 계속하여 그의 돌봄 아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떤 길도 혼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너희 자신을 그에게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의 항상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인도받고 이제 그의 포도원에서 그의 뜻에 따라 일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그의 피조물들을 감싸게 된다. 그는 많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아직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믿음의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인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음성을 그들 안에서 들릴 수 있게 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그의 일꾼인 너희들 통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너희의 의지가 만들어야 하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모든 각각의 혼이 그에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는 너희를 통해 모든 혼들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게 너희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남들에게 저세상에 대한 생각을 친숙하게 하면, 그들의 관점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나라로 향하게 하면, 어떠한 영적인 생각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는 전적으로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언젠가 단지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생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시도하면, 이는 큰 영적인 유익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이런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더욱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를 위해 섬기는 일꾼들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한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혼들은 이를 통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를 너희의 말을 자원해 듣는 이웃에게 전하면, 너희는 너희에게서 나오는 빛을 행복하게 느끼고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갈급하게 받아들이는 저세상의 혼들의 동행을 항상 받기 때문이다. (1961년 9월 14일)

너희는 항상 단지 그를 섬기기를 원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너희의 이웃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대신 행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관계를 알려주면, 너희가 그가 갈망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인도하면, 이런 일들은 너희가 너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말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단지 말하는 통로로써 헌신해 너희를 통해 아버지 자신이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동안에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잘 영접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의 포도원에 합당한 일꾼이다. 그들의 일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영적인 부. 저세상에서 하는 일.

B.D. No. 3212

1944년 8월 4일

**인**간은 영적인 힘을 사용함으로 이 땅에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가 영원 가운데 그를 가장 크게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런 영적인 부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저세상의 나라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힘과 빛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미 풍성하게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축복된 상태이고, 이 땅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고, 즉 물질적 창조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유일하게 영적 부유함이, 그가 이제 영의 나라의 무지한 혼들과 또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요구된다.

인간은 이 땅에서 이런 보물을 모아야 하고,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의 길을 통해 단지 영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사랑이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저세상에서 영의 존재가 하는 활동은 단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고,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의 존재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영의 존재가 먼저 영적인 선물을 소유해야만 한다.

혼이 죽을 때, 영적인 부가 클수록, 혼은 이제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이 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받고, 지식이 없어 무기력하고 이로써 위험에 처한 혼에게 무한한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에게 영적인 보물이 제공될 때, 혼은 비로소 위험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의 혼은 항상 자신의 부를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빛의 혼은 계속하여 힘을 받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혼이 행하는 사랑에 대해 항상 새롭게 사랑의 힘과 지혜와 축복을 제공하면서 혼에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혼은 지속적으로 이 힘을 받고, 이 힘을 지속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혼이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아주 축복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영적인 위험은 사랑이 충분히 행하지 않는데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보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보물을 전하는 일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줄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은 영적인 재물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면, 영적인 재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그런 것은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영적인 재물은 무조건 진리여야만 하고, 단지 진리만이 영적인 재물이다. 단지 순수한 진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 축복을 줄 수 있고, 단지 진리가 혼을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고, 사랑으로 저세상에서 역사하기 위해 진리를 먼저 소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 단지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함으로

자신을 진리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 그가 이 땅을 떠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를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영적 보물을 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과 같이 저세상에서 가르치는 일.

B.D. No. 2777

1943년 6월 17일

**영**의 나라에서는 단지 모든 영역에 걸친 지식을 가진 존재가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허용을 받는다. 모든 존재는 실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을 저세상의 무지한 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녀들이나 저세상의 혼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존재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존재들은 높은 성장 정도에 있고, 비록 그들이 가진 지식에 합당하게 지식을 전하지만,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고, 따라서 끊임없이 지혜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한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으면 그는 이 전에 이미 지혜를 받았어야만 하고, 그 자신이 이 전에 오류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야만 한다. 이런 가르치는 직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 수행되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들에게 끊임없이 흐르는 힘의 흐름으로써 진리를 받는다.

빛 안에 선, 저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활동은 존재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하는 일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단지 자신의 성숙도로 자신이 얻은 만큼 나눠줄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의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지식도 다르다. 그들은 가르치는 일을 책임지는 빛의 존재들로부터 지식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이 땅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세력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영의 발산인 빛과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전해주는 빛과 능력의 수령자들이기 때문이다.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빛의 존재들을 통해 지식을 전달받을지라도,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왜냐면 모든 빛으로 충만한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단지 각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을 상상할 수 없게 행복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과 이미 연합을 이룬 존재에게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존재들이 임의대로 행할 수 없고, 그들은 자신의 뜻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자신의 성숙도를 넘어서는 일을 하라는 재촉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존재가 자신의 성숙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에게 그가 소유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존재가 접근해서 자신의 무지로 인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전해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완전히 무지한 존재는 자신을 영의 역사에 의탁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빛의 존재들은, 이 땅의 인간이 가르침을 받으면, 단지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 함께 모인다. 왜냐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에 대해 알게 된 존재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선행 조건은 인간이 순수한 진리를 원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로써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통해 대적자의 세력들이 자신에 대한 권세를 갖지 않게 하는 일이다.

(17. 6. 1943)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가르침에 자신을 여는 일이고, 빛과 지식을 전하는 존재들이 너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이고, 이런 역사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일이다. 왜냐면 영의 나라의 아는 존재들이 모든 사람 가까이 머물고, 계속하여 사람의 생각을 영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제 영향력에 굴복하고, 자신이 진리에 침투하기를 원하면, 그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가 더 갈망할수록, 그는 더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한이 없는 지식을 가진 세력들이 역사한다. 왜냐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신성이 빛과 능력의 전달자를 통해 자신의 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흘러주게 하면서, 그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이제 생각을 통해 또는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음성을 통해 제공되는 빛과 힘은 지식이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따라서 영의 나라의 빛의 정도가 영의 존재가 자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를 정한다. 존재는 이제 이런 지식으로 일하고, 다시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지식을 갈망하는 영역에서 자신의 지식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영역이 이제 이 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왜냐면 영역이 공간에 묶여 있지 않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에서 자원하여 받아들여려는 의지와 무지의 정도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빛을 받는 모든 존재는 혼의 성숙도가 주는 존재의 지식에 합당한 곳에서, 즉 전해주는 존재가 받는 존재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항상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바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혼의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이 일을 위해 그에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써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영접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것의 영적인 연관 관계에 대해 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자신이 가장 전적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가르치는 일은 단지 이를 위해 임명된 가르치는 세력들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가르치는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를 가르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요구를 그가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직분은 자신이 먼저 받은 지식을 전파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가르치는 일이다. 이런 가르치는 일에 당연히 부족함이 없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은 단지 스스로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진 빛의 존재가 전해줄 수 있다.

그러나 빛의 존재들은 또한 사람의 영적 속성을 감시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영적인 세력에 의한 거짓된 것의 전파를 방지하고, 사람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하고, 항상 그의 생각을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그들은 가장 깊은 지식과 함께 가장 높은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 앞에서 모든 덜 온전한 존재들은 모두 무력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에게는 진입이 거부된다. 왜냐면 받는 사람의 진리를 향한 열망이 무지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전해진 영적인 지식을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장 깊은 진리로 받아드릴 수 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그는 잘못 인도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와 순수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를 모든 실수로부터 보호하고, 그를 또한 이 땅에 진리를 전파하는 목표를 가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빛의 존재들에게 의탁하고, 빛의 존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빛의 존재가 생각을 통해 주는 영향.

B.D. No. 3354

1944년 12월 3일

**지**식을 가진 저세상의 빛의 전달자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면, 그는 사람의 모든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그 사람의 곁에 항상 머문다. 그러나 빛의 존재의 노력의 성공 여부는 인간의 의지가 항상 결정적이다. 왜냐면 비록 존재가 힘으로 충만해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을지라도, 존재가 사람의 의지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그에게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빛의 존재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위해 큰 인내가 필요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이 설명해줄 준비가 된 특정 주제로 향하도록 항상 또 다시 인도해야 하고, 생각이 이런 주제를 떠날 때, 그들은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커야 하고,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해야 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빛의 존재들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의 세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가 아직 눈에 띄게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영적인 주제에 대해 많이 생각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그를 만족시킬 것이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그가 동의하는 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빛의 존재들이 역사하고,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 안에 역사할 수 있다. 빛의 존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의 존재들의 노력과 인내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람들의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 있다. 왜냐면 사람이 더 자원할수록, 그는 더욱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버리지 않고, 묵상한다. 그러면 비로소 이런 생각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즉 빛의 존재들이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 조언해준 일을 사람이 수행하게 된다. 사람이 생각으로 전달받은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들은 것을 즉 영적으로 영접한 것을 이웃사람에게 전해주려는 소원을 갖게 된다. 왜냐면 내적으로 그를 움직이는 것이 그가 이웃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

면 이런 일은 이웃사람에게 빛의 존재가 활동하도록 이웃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왜냐면 이웃사람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도 또한 생각하기 시작하고, 빛의 존재가 다시 역사하고, 생각으로 하는 질문과 설명의 형태로 그의 생각에 양분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빛의 존재들에게 모든 사람이 맡겨져 있고, 모든 사람이 빛의 존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다. 생각이 영적인 방향을 향하면, 즉 생각이 육체가 아닌 사람의 혼에 영향을 주는 이 땅의 삶의 밖에 있는 것으로 향하면, 빛의 존재들은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속삭임으로써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답변을 활용하게 한다. 왜냐면 생각은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이 생각으로 조언 받은 것을 조언대로 행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존재의 노력은 많은 사람에게서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순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이나 영적 지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 빛의 존재들은 인간의 입을 통한 모든 지원에 감사한다. 왜냐면 빛의 존재는 드러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고,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고, 인간의 의지 자신이 빛의 존재의 일을 허용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들은 법의 제한을 받는다. 왜냐면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은 단지 사람의 의지가 강요받지 않고, 빛의 존재의 대리자들이 그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의 영향을 받아드리면서 스스로 역사할 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를 둘러싼 빛의 존재들도 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빛의 존재들은 생각을 통해 그를 가르치고 그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끊임없이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그의 생각은 올바른 길로 향한다. 왜냐면 단지 사람의 의지가 그들의 역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빛의 존재가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빛의 존재를 통해 사람들을 돌보는 일.

B.D. No. 5558

1952년 12월 16일

**하**늘나라의 문이 너희에게 활짝 열려 있고, 영의 존재들이 너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영의 존재들이 너희와 함께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존재들은 너희를 염려하고 있다. 왜냐면 그들이 너희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을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에게 너희 혼의 구원을 돌보고, 너희 생각을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배정을 받은 영의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이웃과 만나게 해서 생각을 교환하게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은 너희가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고,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을 행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혼을 성숙하게 만들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를 단지 부드럽게 재촉할 수 있지만, 너희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영적 돌봄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향해 가야만 하고,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이 너희를 위해 열려 있고, 너희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너희의 영의 친구들의 사랑이 아주 클지라도 영의 친구들은 너희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희의 의지에 합당하게 제한을 받는다. 그들의 힘의 효력은 너희를 전적으로 내 의지에 합당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너희를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돌보는 영의 존재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내 동의 하에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고통스러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한다.

나는 내 나라의 이런 존재들을 자유롭게 놔둔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내 뜻대로 활동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양육하는 과제를 완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실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인 영의 나라에서 빛의 존재들의 행동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일이 아직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 이 땅의 사람들은 위로 향하는 길을 더 쉽게 해주는 봄과 도움이 필요하다.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내 뜻대로 역사하고, 사랑과 지혜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존재하는 존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적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런 모든 도움을 활용하는 일은 유일하게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존재의 싸움.

B.D. No. 7948

1961년 7월 24일

**영**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혼들을 위한 싸움이 있다. 왜냐면 그 곳에서도 내 대적자가 창궐하기 때문이다. 그는 혼들이 높은 것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에서 대적자는 혼들이 빛을 피하게 해 그들을 항상 깊은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게 하려고 시도한다.

영의 나라에서 빛의 세력이 일을 한다. 이 세력은 혼에게 단지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려는 아주 작은 의지만이라도 있으면 이 혼을 돕는다. 그러므로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들도 보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 안에서 빛을 향한 높은 곳을 향한 자유를 향한 의지가 깨어나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존재가 쉬지 않고 어두움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려는 노력하는 혼에게 역사해 혼 스스로 어두움을 피하기를 원하게 만들려는 노력하는 빛과 어두움 사이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모든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제 빛 존재들은 빛나는 밝음 가운데 혼에게 다가 갈 수 없고 그들은 혼들과 같은 상태로 다가가야만 한다.

그래서 혼들이 신뢰를 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왜냐면 혼의 저항하려는 의지가 만약에 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빛의 존재가 하는 일이 아주 쉬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빛의 존재의 사랑이 자신에게 섬기게 맡겨진 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빛의 존재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 서있고 그러므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이 항상 또 다시 불행한 혼들이 그들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혼들에게 빛을 전달하게 만든다.

그들은 대부분 이 일에 성공을 한다. 단지 전적으로 강박해진 혼에 대해만 대적자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구원시대의 끝에 이제 새롭게 파문을 받게 만들 수 있다. 혼이 위로 성장하지 않고 항상 깊게 타락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영의 입자로 분해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영의 나라에서 구속하는 일은 항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왜냐면 빛의 존재들이 다가오는 이 땅의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선이 되지 않는 혼들이 받는 새로운 파문의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빛의 존재들은 진실로 모든 것을 행한다. 왜냐면 빛의 존재들은 고통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다시 이 땅에 과정을 갈 수 있기까지 소요되는 끝 없이 긴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혼들이 구속을 받게 돕는 일이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빛의 나라가 열리게 되려면, 그들은 저세상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희가 행하는 구속하는 일은 축복받는 일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이미 찾은 혼들은 비록 그들이 영의 나라에 들어설 때 높은 빛의 정도를 증명할 수 없을 지라도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깊은 곳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에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이 주어져서 그들은 위를 향해 성장할 수 있다.

내 대적자는 종말의 때에 진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권세를 활용한다. 그는 나를 추구하려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공격한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에게 속한 자들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빛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을 발산한다. 비록 그들이 혼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룬다.

사랑이 미움에 대항해 싸운다. 사랑은 진실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모든 영적이지 못한 것을 너희들로부터 물리칠 수 있다. 너희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면, 너희가 항상 악에 대항해 사랑으로 대처하면, 너희는 어두움을 대항해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왜냐면 사랑 앞에 대적자는 패배하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사랑을 피해 도망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랑이 너희 안에서 강력하면, 그는 너희들부터 떠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힘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사랑의 비추임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들은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내 대적자는 이런 혼들에 대한 권세를 잃게 된다. 왜냐면 한번 사랑의 힘을 체험한 사람의 저항이 꺾여지게 때문이다. 이제 영의 나라의 빛의 존재가 그들을 높은 것으로 인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혼들은 영원히 영원까지 구원을 받는다.

아멘

빛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형체를 창조한다.

B.D. No. 7976

1961년 8월 26일

**너**희가 내 뜻을 따라 능력과 빛과 권세와 지혜를 다시 활용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 항상 내 의지와 같은 자유의지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너희에게 창조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창조물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사랑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형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형체를 만들 것이다. 너희 스스로 이 가운데 너희의 축복을 찾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내 창조의 능력으로 내 형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성품은 내 원래의 성품에 상응한다. 모든 신적인 성품과 능력이 너희 안에 있었다. 너희는 이 능력을 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너희가 스스로 나로부터 타락할 때까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한 순간까지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너희가 거부함을 통해 모든 능력을 스스로 빼앗기게 했고 그러므로 더 이상 창조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너희에게 더 이상 비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스스로 이 능력을 더 이상 영접하길 원하지 않았고 이로써 무능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다시 너희의 원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를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이루어야만 하지만 내 목표이고 내 목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단지 너희가 축복 되길 원하는 내 아주 큰 사랑이 너희가 모든 방식으로 내 지원을 받게 될 것을 너희에게 보장한다.

너희가 다시 원래 상태에 도달하면, 내 사랑의 힘이 원래 초기처럼 너희에게 흐를 것이다. 너희는 사랑의 힘을 다시 지혜롭게 활용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스스로 이제 다시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이 너희가 받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돕기 원한다.

너희는 쉬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것이다. 너희가 의도하는 것을 너희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이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으로써 너희는 너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단지 놓여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모든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모든 혼의 입자들에게 합당한 형체를 창조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아직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하는 존재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는 이런 존재들의 성장 정도를 깨달을 것이고 이에 합당하게 너희의 창조하는 일은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너희를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존재들의 목적을 깨닫고 너희의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하는 사랑의 의지를 통해 존재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너희가 모든 창조의 작품을 알고 그의 특성과 성분과 목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성장 정도가 너희에게 부족하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고 이런 깨달음을 도달하면, 너희 스스로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너희는 기적 위에 기적을 볼 수 있고 너희 스스로 이런 기적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는 각자의 성장 정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형체가 되게 한 내 생각이고 착상이다.

언젠가 이 형체가 영적인 존재를 감싸서 영적인 존재가 이 형체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스스로 이런 형태를 창조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아주 다양한 창조물들 가운데 그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모든 창조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내 큰 사랑과 지혜를 깨달을 것이다.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은 항상 강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능력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축복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너희가 꿈꾸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내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들은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창조하고 조성해야 한다. 그들은 내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육신을 입은 빛의 존재의 도우려는 자세

B.D. No. 8664

1963년 11월 5일

**만**약에 내가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직접 나로부터 나온 빛과 능력을 전하는 빛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종말 전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이 내 대적자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에게 전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빛의 일꾼들은 오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해주어서 이로써 나에게 인도하는 즉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밝혀 주면서 어두움의 권세자에 대항해 싸운다. 이 기간에는 강하게 대항하는 세력이 역사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 자신이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대적자에게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적자의 나라 안에서 거하고 계속하여 어두운 영 안으로 빠져들어 간다. 그러나 내 나라는 빛과 축복의 나라이다. 이 나라로부터 빛이 충만한 존재들이 나에게 자신을 제공한다. 이 존재들은 도울 준비되어 있고 불행한 자들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종말 전에 귀환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단지 사랑이 그들을 이런 구원 사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배치한다. 이곳에서 이제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역사를 한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인간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살고 비록 그 혼이 이미 성숙하였지만 사람들과 같아 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주로 가난한 형편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위험한 고통을 당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그들은 내 종으로써 이 땅에서 역사하고 내가 항상 선한 가장으로서 모든 세상적인 염려를 대신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특이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의 특별한 사명을 통해 그를 깨닫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빛의 전달자로서 나로부터 직접 받은 진리를 그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달하는 자로서 나를 섬기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한 진리만이 전적으로 오류 가운데 어두운 영으로 살기 때문에 멸망받을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인류가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는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형편이 나로 하여금 빛의 일꾼을 이 땅에 보내게 만든다. 빛의 일꾼은 인간으로써 이제 가능한 것을 행하고 사람들이 믿음의 강요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나 대신에 이 땅에서 역사한다. 이런 빛의 전달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인간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왜냐면 그들은 곧 이웃의 영적인 깊은 상태를 깨닫고 만약에 그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진리의 빛에 도달할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나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아서 모든 것의 연관 관계를 아는 지식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사명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들이 인간으로써 어느 특정한 성장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나에 의해 숨겨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성장 정도에 그의 육신의 삶을 마치기 직전에 비로소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어떠한 영이 자신 안에 육신을 입었는지는 그 사람의 사명을 위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이 땅을 거치는 과정에 제공한 모든 빛의 존재들은 내 심장에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랑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내 모든 내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깊어서 항상 제한을 가진 생각이 하는 것처럼 나는 내 편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이전에 삶에 관해 알고자 하는 소원이 나타나면, 너희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만약에 너희가 이 암시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때때로 작은 암시를 주게 만든다.

왜냐면 내 나라에는 끝 없이 많은 같은 사랑의 정도를 가진 비록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지만 그들의 크고 넘치는 사랑을 통해 원래의 영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들을 나는 다시 내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들의 영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임재를 한다. 왜냐면 이런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인류가 단지 내 일꾼인 너희가 나로부터 직접 받아서 오류를 드러나게 하게 이 땅이 빛이 되어 사람들이 나 자신의 전적인 성품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전달해야 하는 순수한 진리만

이 그들을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구하고 찾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이런 깨달음을 저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끝없는 사랑과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크고 넘치는 능력을 가진 나를 깨닫는 사람은 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섬기라. 겸손. 다시없는 기쁨.

B.D. No. 1744

1940년 12월 19일

**조** 재가 섬기기로 결정하는 한, 존재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섬기는 일이 더 이상 겸손을 위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 이제 섬기는 일을 최고로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빛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힘의 유입이 필요하고, 그들이 이제 존재들에게 부족한 것을 존재들에게 줄 수 있게 된 일이 존재들을 헤아릴 수 없게 행복하게 한다. 이런 존재들은 그들의 완전 상태로 인해 하나님의 유입을 받고 운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으로 항상 단지 나눠 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아주 큰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들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에게 행복을 위해, 피조물들의 보호를 위해 맡겨진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표명한 이 땅의 자녀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돕는다. 그들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부름도 듣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섬기려는 의지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묵임을 받은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는, 다시 말해 묵임을 받은 존재를 그의 강요자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면서, 구원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보상이나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는 가장 깊은 겸손을 증거하고, 영원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증거한다. 섬기는 일은 깊은 사랑으로 왕이 몸을 굽히는 것처럼, 몸을 굽혀, 바닥에 있는 존재를 들어올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런 섬기는 일은 통치하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깊은 사랑이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겸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해야만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동인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이 더 높게 성장할수록, 섬기는 상태를 덜 굴욕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더 많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킬수록, 존재가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의 위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이 힘을 계속 분배할 수 있는 존재의 형언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해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의식이 존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단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너희 혼에게 가치가 있다. 나는 법이 너희에게 명한 일은 자유의지로 행한 일로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면 형벌의 위협이나 보상을 향한 약속이 내 계명대로 행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고 유일하게 너희 안의 사랑이 너희를 정해야 하고 이 일은 법을 통해 강요할 수 없고 그러므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행하게 만드는 너희의 사랑의 정도를 알고 너희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행동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온전한 정도와 너희 혼의 성숙한 정도가 단지 너희 안의 사랑을 얼마나 확장시키는 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의 방식이 너희가 성숙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는 사랑으로 행해야만 한다. 사랑의 길이 유일하게 온전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의지를 통해 이 땅의 삶을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에 추가된 인간이 만든 계명을 따르는 일이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다. 너희는 또한 내 사랑의 계명을 의무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명할 수 없고 사랑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의무로 만든 일을 수행하는 일을 통해 단지 너희 안에 사랑이 깨어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하는 일이 내 맘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너희가 항상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써 너희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일을 행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볍게 믿지 않게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이 관련되지 않은 모든 다른 일들이 왜 가치가 없는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혼은 단지 사랑을 행함으로 성숙할 수 있다. 왜냐면 혼의 성숙은 단지 사랑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 너희의 유일한 과제는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런 귀환이 단지 사랑으로 가능하고 너희가 다시 사랑이 되고 너희가 사랑을 통해 너희를 다시 신적인 존재로 만들면,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나 자신이 너희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섬기는 사랑만이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너**희의 성장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너희는 섬겨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은 자신 고유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을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창조주의 권세로부터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창조된 것은 없다. 인간으로서 너희는 실제로 모든 곳에서 섬기려는 목적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창조주 자신이 자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과제를 주었고 이를 성취함으로써 항상 단지 그 안에 묶임을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단계적으로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이룬다. 즉 존재들이 의무상태 아래서 끝 없이 긴 성장과

정을 간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를 이미 자주 계시했다.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완성은 단지 자유의지 가운데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져 만한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결정적인 일은 한때 타락한 존재로서 자유의지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써 섬기는 일이다.

사람이 사랑으로 섬겨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고 이 땅에서 이미 완성에 이르게 된다. 사랑은 항상 섬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사랑의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를 도우려고 항상 노력하기 때문이다. 섬기는 사랑은 순수한 신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단지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잘못 된 방향을 향하지 않고 항상 단지 이웃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제 사람이 섬기는 사랑으로 시도하는 것은 항상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항상 마지막 완성이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섬기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는 피할 수 없이 그의 성장 과정은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그의 자기 사랑이 강해지고 퇴보해 그의 이 땅의 삶이 헛될 위험이 있다. 왜냐면 그는 인간으로써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에 가게 된다. 왜냐면 섬기는 사랑은 겸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때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의무상태에 있을 지라도 모든 창조는 섬긴다. 한때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들이 의무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선행조건인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선행조건이 없으면 존재들은 영원히 심판 받은 존재로 남게 되고 더 이상, 자유롭게 창조되어 자유롭게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었던 원래의 상태에 상응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이런 자유를 다시 얻어야만 하고 비록 그가 그의 의지를 반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인간은 그가 원초의 상태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그의 이 땅의 삶 동안에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섬겨야 한다. 이는 자기 사랑을 뒤로 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신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항상 행복하게 해주려는 신적인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자기 사랑을 변화시키게 사람이 단지 자신의 이웃을 돌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습관이나 관습을 행함으로 너희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을 지라도 이 모든 것이 섬기는 이웃사랑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너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단지 섬기는 사람을 통해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왜냐면 이 사랑만이 너희의 하나님께 귀환하려는 자유의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항상 너희가 섬기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이웃을 위해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곤경에 있는 자신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전에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이 땅의 과정은 실제 어렵고 고난이 많은 과정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통해 확실하게 높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자연법칙에 따라 섬기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단계에서는 너희에게 더욱 어렵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극복해야만 하고 스스로 전에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 강요받았던 것들을 자유의지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섬겨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게 더 이상 강요받지 않고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간으로 이 땅의 삶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는 다시 퇴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다. 너희는 섬기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사랑 자체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너희는 자녀로서 너희가 피조물로서 한때 배출되어 나왔던 아버지에게 돌아 간다.

아멘